



FEELTONG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복간 제 52호

feeltong.org

사/단/법/인/청/소/년/문/화/공/동/체/필/통

 세월호 2기
특조위를 기다립니다

- ▶▶ [이달의 인물] 피파온라인 국가대표, 대아고등학교 2학년 윤형석
- ▶▶ [청소년 뉴스] 경남학생인권조례 도의회 심의 통과될까?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위헌 판결
여주시, 모든 청소년에게 전국 최초 '무상 생리대'
- ▶▶ [학교소식] 진주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진주시 초·중·고·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대아고, 제52회 충무공탄신기념 행군
2021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줄고 정시비율 늘어
- ▶▶ [맷강년맷반] 진주고 2학년6반편
- ▶▶ [맷강년맷반-신청] 선명여고 외식조리과 3학년 11반
- ▶▶ [특집] 세월호 참사 5주기, 노란리본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 [틴틴이슈] 진주 참극,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 [필통번역실] 영화 천만일의 OST 천만일
- ▶▶ [19금 파헤치기] 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기준이 뭔가?
- ▶▶ [필통실험실] 스마트폰 충전기 정품 VS 다○○ 비교
- ▶▶ [지역이슈] 진주, 세계 최대 공룡 발자국 화석 발견
- ▶▶ [글로벌미팅] 인도네시아 유학생 Stevany Grace를 만나다
- ▶▶ [필통뮤직차트] 비가 오면 생각나는 노래 CHART!
- ▶▶ [동아리탐방] 경상사대부고 경제탐구동아리 E.T.
- ▶▶ [반보드 Chart] 동명고 2학년6반 VS 선명여고 2학년2반
- ▶▶ [I'M FASHION PEOPLE] 정서인(중앙고1) & 심희주(대아고2)
- ▶▶ [SNS 맛집 검증] 진주 대안동 디멜리 라볶기
- ▶▶ [JOB을 잡아라] 교육복지사 강경화 선생님을 만나다
- ▶▶ [씨네통통] 영화, 레인맨 (Rain Man, 1988)
- ▶▶ [기고] 나의 '학생인권조례', 그 희망의 단어!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건국대 산업디자인과를 찾아서
- ▶▶ [취재수첩] 아, 흡연예방교육 또 해...?
판치기 할 사람~~~~!
수학여행 우리의 안전요원은 어디 있나요?
흡배이스는 도난 기지인가?
너희 학교 시험기간 몇 일간이야?
밤늦은 야식의 유혹, 이렇게 위험하다고?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4월호 문제



진주 하안메디컬 확장 개원

진주시 계동 옛 KT전화국 자리

하안메디컬은
분야별 전문의가 진료를 합니다

하안메디컬 전문과목

- 하안피부과
- 하안성형외과
- 하안소아청소년과
- 하안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2019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스러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대아고등학교 2학년 윤형석

나는 피파온라인 국가대표 태극기를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려 놓겠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게임'은 늘 부모님과 자녀간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게임은 하나의 큰 산업이 되었고 세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 번 짚은 꿈꾸어 보았을 '프로게이머'. TV에서만 보던 프로게이머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 피파온라인 국가대표로 선발된 대아고등학교 2학년 윤형석 학생을 만났다. 그를 통해 게임과 프로게이머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어 보자.



Q. 간단한 자기소개

A. 안녕하세요. 저는 피파온라인4 최연소 국가대표이자 프로게이머이며 현재 전남 드래곤즈 1st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대아고 2학년 윤형석입니다.

Q. 피파온라인을 하게 된 계기는?

A.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축구게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선수를 게임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좋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Q. 본인이 생각하는 피파온라인의 매력?

A. 아무래도 좋아하는 선수들을 제 마음대로 팀에 넣어 쓸 수 있는 게 제일 큰 매력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게임과 다르게 상대와 1대1로 볼기 때문에 이겼을 때의 짜릿함이 더 큰 거 같아서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Q. 프로게이머를 하게 된 계기?

A. 어릴 때부터 프로게이머를 꿈꿔왔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집안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꿈을 포기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페이스북 북에서 우연히 피파온라인4 프로 입단 테스트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자마자 도전해보자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밤낮을 없이 열심히 연습해서 결국 최종 테스트에 합격, 지금의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었습니다.

Q.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처음에 프로게이머를 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생각하듯 반대하거나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프로게이머가 된 이후로는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Q. 가장 행복했을 때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A. 이번 EA 챔피언스컵에 한국 대표로 극적으로 발탁됐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밤낮없이 죽어라 연습만 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거 같아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연습할 때죠. 많이 힘들어요. 의자에 10시간~12시간 앉아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으니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죠. 무엇보다 끝없이 연습해도 정작 대회 때 잘 할 거라는 확신이 안서면 불안합니다. 더 연습은 해야겠고 몸은 이미 한계다 보니까 불안감에 똑바로 잠들지도 못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Q.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A. 먼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이 게임에 재능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재미있으니까 무턱대고 프로게이머를 진로로 잡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공부와 병행하면서 프로게이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게이머라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곳에 올인 한다고 해서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준비 되어있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꿈이라고 단순히 게임만 하지 마시고 공부와 병행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자신이 게임에 재능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재미로 하는 것과 자신의 일이 되는 것은 다르죠.
자신의 길이 되려면 공부와 게임에 그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야지만 가능합니다.”**

Q. 게임 국가대표가 된 느낌이 남다른 것 같은데?

A. 사실 운이 좋았어요. 모든 게이머들의 목표가 국가대표잖아요. 저는 데뷔하자마자 그것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국가대표가 된 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태극기를 세계 최강 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롤모델이 있다면?

A. 제 롤모델은 성남FC 소속의 김정민 선수입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김정민 선수 플레이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김정민 선수에게 중국의 구단이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중국리그로 오라는 제안이 왔었는데 한국 피파온라인의 발전을 위해 성남FC와 계약을 하겠다는 기사를 읽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선수와 함께하고 있어 더 기쁩니다.

Q. 학업과 프로게이머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A. 힘들어요. 대회 날짜와 시험 날짜가 비슷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 중 무엇을 하든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당장 쉬운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으로 극복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기대되는데요?

A.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EA 챔피언스컵에서 우승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목표입니다. 멀리 보면 세계 최고의 피파온라인 프로게이머가 되어서 한국 E-SPORTS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Q. 응원해주는 팬 분들께 한마디?

A.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일단 항상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시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대회를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OTV 출연 당시 모습)

[취재/ 조민기(진주기공2)기자]

[지역이슈]

진주, 세계 최대 공룡 발자국 화석 발견

공룡 발자국 7천700여 개,
세계 최대...
양과 질에서 압도적



경남학생인권조례 도의회 심의 통과될까?

학생인권조례 최종 수정안 도의회 제출, 5월14일~23일 심의



경남도교육청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지난 4월2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조례 제정 여부는 이제 도의회로 속제가 넘어갔다. 2017년 11월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밝힌 후 17개월 만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정해 입법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앞서 공개한 내용에서 일부 문구를 다듬고, 3개항 2호를 줄였다. 제4조 3항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기본 원칙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웠다. 또 학생인권침해 사건 조사에서 '피해자 등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삭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해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2009년, 2012년 두 차례 있었으나 무산됐고, 이번이 세 번째다. 도의회는 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자유한국당 소속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의회 전체 의석은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11일 열린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동의낙태죄를 적용한 270조 모두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고 270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처벌하는 조항이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이 불합치, 3명은 단순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7명의 재판관이 낙태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4대 4 합헌을 결정했던 2012년 당시와 달리 재판관

들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더 무게를 실어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임신·출산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봤다. 이는 낙태죄를 처음 규정했던 1953년 이후 66년 만에 내려진 위헌결정이자 2012년의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번복한 것이다. 이로써 현행 낙태법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이후는 개정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문체부, 게임중독 질병 분류 반대의견 WHO 전달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전달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29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에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것에 대해 WHO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5월1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은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 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포함됐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ICD)에 등재해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WHO는 지난해 6월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기로 하고, 올 5월 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도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게임 업계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주시, 모든 청소년에게 전국 최초 무상 생리대

경기도 여주시에 사는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4월 1일 밝혔다. 여성 청소년들의 위생용품을 소득 구분 없이 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가결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살 이상 18살 이하의 여성청소년 4천여명이 생리대 구매비 또는 교환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들어가는 예산은 4억9700여만원 정도이며, 여주시



역 여성 청소년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고3 투표권 현실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확대라는 큰 이슈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고3 투표권'은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청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줄기 차게 주장해왔다. 이들이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하는 주된 근거는 만18세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운전면허 취득·혼인 등이 가능하며 국방·교육·납세·근로의 의무를 지니는 '성인'이라는 점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

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05년 이후 20여 건의 선거연령 인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제 개편 등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만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층이 어디일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진주층'과 '진동층'이다. 경남 남해와 진주, 경북 고령 등지에 있는 '진주층'에서는 천 1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시대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9천만 년 전 지층인 '진동층'은 경남 마산과 고성 등에서 발견되는데, '공룡 엑스포'로 유명한 경남 고성군 하이면 상족암이 대표적이다. 천연기념물 제411호로 지정된 상족암은 1982년 학술조사에서 2,000여 개가 넘는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세계 3대 공룡 유적지로 인정받았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조성 현장에서는 백악기 '진주층'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익룡 발자국이 발견돼 익룡 박물관이 세워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1cm) 소형 육식 공룡 랩터 공룡 발자국 화석,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구리 발자국 화석,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마뱀 발자국 화석 등 공룡 발자국과 다양한 포유류 발자국 화석 등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뛰어넘는 공룡 발자국 화석 밀집지가 발견됐다. 경남 진주시 정촌면 뿌리산염단지 조성공사장이다. 지난해부터 발굴 조사를 하던 이곳 '진주층'에서는 발바닥의 무늬(지문)까지 선명한 초식공룡과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들

이 대량으로 발굴되면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는데 지층을 걷어낼수록 끝도 없이 많은 발자국이 발견됐다. 이 지역의 공룡 발자국 개수는 7,716개로 보고된 상태다. 현재까지 세계 최대 공룡발자국 밀집지는 볼리비아 수끄레 지역 갈오르코 공원(약 5,000개)인데 진주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개수만 해도 이를 넘기 때문에, 단일 지역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분명하다. 지층을 걷어내며 내려갈수록 앞으로 더 많은 양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이렇게 대규모 화석이 발견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에서 이곳을 현장 보존하지 않고, 복제와 발굴(이전)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로 많은 양의 발자국 화석이 나오면서 보존 가치가 커지자,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2월 현장 조사에 이어, 지난 4월4일에는 문화재 전문가 검토회의를 현장에서 열었다. 그 결과 앞으로 해당 지역의 보존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회의를 열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위원회 회의를 거쳐 화석 밀집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진주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그대로 원형 보존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고 역사진주시민모임 등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공룡발자

국 화석지 원형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지역을 보존할 수 없더라도 일부라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높기 때문에 현장에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서, 세계적인 공룡 발자국 화석 밀집지의 운명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 현장 보존이 아닌 일부 복제와 발굴(이전)로 결론이 날 경우, 세계 최대 규모 공룡 화석 산지는 9월 까지 발굴조사를 마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진주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가 지난 3월 25일 진주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교복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진주시는 4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으로 진주 지역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외 재학 중인 신입생과 전입생도 포함된다.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각 학교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며, 타 지역의 학교 입학생과 전입생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5월 말부터 연중 지원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주시청 평생학습원(749-8324)으로 하면 된다. 약 6500여명의 중·고등학교 학생과 그 부모들이 교복구입비 구매 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줄고 정시비율 늘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는 전체 모집인원은 감소하고 정시모집 비율은 소폭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4월30일 발표했다. 2021학년도 전체 대학 모집인원은 34만7447명으로 2020학년도 34만7866명보다 419명이 감소한다. 수시모집은 전체 모집인원의 77.0%인 26만7374명을 뽑고, 정시모집은 23.0%인 8만737명을 선발한다.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비중은 신뢰도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에도 몰해 67.1%에서 2021학년도에는 67.3%로 증가한다.

옛 진주 중앙중 부지 매각 둘러싸고 갈등 심화

옛 진주 중앙중학교 부지 및 교사 건물이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부지활용 방안을 두고 경남도교육청과 진주시기계공고 공동문화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부지 소유자인 경남도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경남개발공사가 부지를 매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진주시기계공고 동문회가 매각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옛 중앙중 부지는 대지면적 6800여평(2만 2640㎡)의 방대한 규모이지만 현재는 구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이 학교시설은 1978년



중앙중이 진주시 하대동으로 이전 후 진주시기계공고가 활용하다가 BTL사업으로 신축하면서 중학교 설립목적으로 도교청에 반환한 후 지금까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

동명고 2019년 진주향교 인성교육 시작

진주향교 충효교육원은 지난 4월3일 오후 7시 30분 진주동명고등학교 2학년 희망자 48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1기 인성교육 개학식과 1주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2016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교육으로 진주동명고 학생들을 인성예절 및 전통교육을 통해 올바른 품성을 갖춘 교양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1·2학기 기별 7주, 주차별로 1~2시간씩 실시한다.

진주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단 종합우승

변변한 경기장이 없는 가운데서도 진주시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단이 4년 연속 종합우승 쾌거를 달성했다. 진주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단은 최근 김해경기장에서 열린 도민체

전 스포츠클라이밍에서 남고부 리드 김도혁(대아고), 여고부 리드 한다경(삼현여고), 남고부 속도 한원우(진주고), 여고부 속도 한다경(삼현여고), 남자 일반부 리드 조경래(빅클라이밍), 여자일반부 리드 김진희(빅클라이밍), 남자일반부 속도 조경래(빅클라이밍)가 1위를 휩쓸었다. 이같은 성적은 진주시역에서는 훈련을 진행할만한 마땅한 외벽시설이 없는 가운데 이뤄낸 성과여서 체육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대아고 출신 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

문재인 대통령이 4월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주시 초·중·고·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올해부터 진주시 관내 91개 초·중·고·특수학교 4만 3천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진주시는 4월1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시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를 열어 올해 급식비 144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동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도 올해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 평균 급식 단가도 작년 2천730원 대비 500원 가량 오른 3천200원으로 책정돼 급식 질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올해 진주시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144억 원에 달한다. 진주시는 올해 교육 분야 지원예산을 지



난해(215억 원) 대비 52% 오른 326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아고 제52회 충무공탄신기념 행군

진주 대아고등학교는 지난 4월26일 충무공탄신 474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생과 교직원, 동문 등 90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제52회 충무공탄신기념 행군을 실시했다. 이번 행군은 대아고 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진주성을 거쳐 경남문화예술회관과 평거둔치 등 남강변 둘레길 21km를 걷는 코스로 진행됐다. 특히 행군 도중 오전에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에 도착하여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에게 참배하고, 오후에는 남강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등 나라사랑과 국토사랑을 실천하는 행사를 가졌다. 대아고의 행군은 이충무공의 백의종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68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올해



52번째로 한해도 거르지 않고 실시해오고 있다.

진주시기계공고 경남기능경기대회서 메달 8개

진주시기계공업고등학교는 지난 4월3~8일 창원과 진주에서 열린 '2019년 경남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3, 은메달 2, 동메달 3개를 수상했다. 서부경남 거점특성화고등학교인 진주시기계공고는 기능경기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에 필요한 메카트로닉스 직종(금,동), 프로그래밍모델링 직종(금,은,동), 미장 직종(금,은,동)에서 각각 수상을 했다. 이번 대회 입상선수는 메달과 함께 국가 기술자격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동메달 이상 입상선수는 10월 4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상남도 대



표 선수로 출전한다.

진주고 손길승 전 SKT 명예회장 특강

진주고등학교는 지난 4월17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길승 전 SKT 명예회장의 동문 기부특강을 했다. 손 명예회장은 이 학교 29회 출신으로 '비*행*기-비전과 행동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봉원중,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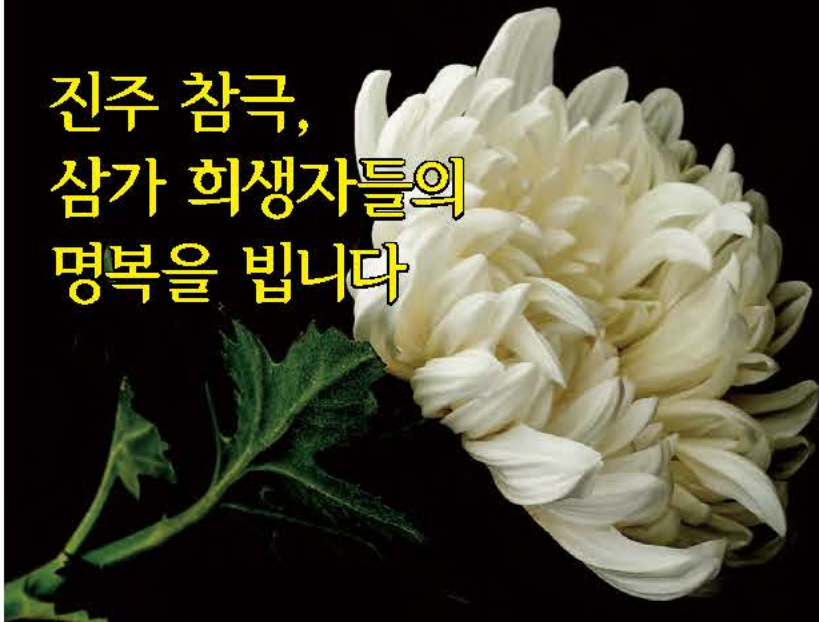
봉원중학교는 3월27일 오전 등교시간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멈춰' 결의문 낭독 및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1학기 '친구사랑 주간'에 이뤄진 행사로,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교학생회 정·부 회장 선거운동 기간에 공정한 학생자치회 선

거와 학교 발전을 위한 후보자들의 공약 홍보와 더불어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한 동곳길 관리를 위해 학교 앞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같이 하며 교육공동체가 한목소리로 단합해 행사를 진행했다.

경남자동차고, 2019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고 발대식

경남자동차고등학교는 2019년 4월 24일 학교 대운동장에서 차량정비 분야 군(軍) 특성화고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제39보병사단, 경상남도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시청, 교직원,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발대식은 교장 선생님께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부대기 및 임명장 수여, 군 특성화반 명예 선서, 각계 인사 축하, 학부모의 임명장 및 견장 수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뤄졌다.

진주 참극,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진주 참극의 보이지 않는 손?

말 그대로 참극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편히 쉬어야 할 공간, 집이다. 그런 집에서 일어난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숙된 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 일부러 불을 질렀고, 화재를 피해 달려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준비한 칼로 무참히 살해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살인범죄 마냥 오로지 죽이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12살, 17살 꽃다운 어린 목숨도 처참히 짓겨졌다.

또 한바탕 조현병이 모든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유사범죄 보도도 잇따른다. 연일 마스크에서는 온통 진주방화, 안인득 얘기로 가득했다. 그러나 어느 사건, 사고 때처럼 서너 달쯤 지나면 또 평온한 일상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렇게 넘기기엔 너무 충격적이고 어느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이번 참극의 원인이 무엇일까? 경찰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을까? 조현병 환자를 관리할 못한 의료계나 복지당국의 잘못일까? 정말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조현병 그 자체가 문제인 걸까?

우리는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행위를 자주 접하고 있다. 사실 어느 누군가가 죽기를 각오한다면, 또한 도덕적인 양심을 떠난다면, 많은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불을 지를 수도 있고, 큰 경기장에 폭탄을 터트릴 수도 있다. 물론 준비만 철저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못하리란 법은 없다. 그것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 사고 후 미친 사람, 정신이상자의 소행이라고 하면 끝일까?



분명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인 것은 맞다. 그렇다면 조현병 환자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일까? 아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범죄율에 훨씬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문제는 조현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정말 중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안인득은 스스로 삶을 포기했고 이미 도덕적 양심을 버린지 오래였다. 자신의 불행은 사회 탓으로 돌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해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게 밀어내는 테러리스트는 무차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앙을 양산할 수 있다는데 그 위험성이 큰 것이다.

말하기는 쉽다. 1차적으로 안인득과 같은 위험군에 속한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의료계, 복지당국, 지자체, 경찰, 교정당국 등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최소한의 연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환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하고 각 기관의 고유 권한 등의 한계도 있겠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무고한 생명이 처참히 난자당하는 일을 더는

경찰, '안인득' 조현병 맞지만 계획범죄 최종 결론

방화 후 흥기되고 12분 동안 비상계단 오르내리며 범행

경찰이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피의자 안인득(42)의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4월2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안 씨는 2016년 7월 이후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하고 증상이 악화돼 피해망상에 의한 누적된 분노감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 씨가 사건 1개월 전에 칼 2자루를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17일) 휘발유를 구입했다"면서 "그는 주거지에 방화한 후 칼을 갖고 밖으로 나와 12분 동안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점 등이 사전 계획범죄의 근거이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0년 7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은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소재 정신병원에서 68회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안 씨가 68회 동안 의사 1명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2016년 7월 이후 담당주치의가 바뀐 뒤 3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안 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사상자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 등 총 21명으로 파악됐다.

두고 볼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뻔한 듯한 참사의 원인과 해법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일지 모른다. 한 사회가 사익을 추구하는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전체 구성원에게 관심을 가져주는지가 흉악범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 발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힘과 권력에 불이익 당하며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그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 갈 땐 우리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 사회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골프 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장님도 없는 것이다. 세상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다. 그래서 정부도, 부와 권력을 가진 집단도, 사회적 기득권자들은 물론 사회전체가 항상 그런 공공성 추구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어쩌다가? 자본주의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소외된 계층을 만들어 냈고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이나 극빈자들에 대한 배려와 복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공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익을 위한 철학으로 중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 또한 여전히 공익과 사회적 복지보다는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깨달아야 한다. 한 사회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전쟁과 테러만큼이나 무서운 재앙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전쟁과 테러는 그나마 목적과 대상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사회가 보이지 않게 밀어내는 테러리스트는 무차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앙을 양산할 수 있다는데 그 위험성이 큰 것이다.

이번 진주 참극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바로 우리사회의 충분하지 않은 공공성의 가치라 말할 수 있다. 제2, 제3의 참극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공성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를 가질 수도 있고 또한 예상치 못한 큰 실패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건강한 사회,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는 이 모든 구성원들이 삶의 극한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고난과 불행을 딛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도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게 말이다.

안인득 사건, 혐오는 안 된다

조현병 낙인이 오히려 사회 안전 위협한다

조현병은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을 말한다. 아직 완치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약물 치료 등을 병행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일어난 강력 범죄의 피의자들이 조현병을 앓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해당 질환에 대한 혐오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전체 인구의 범죄율은 3.93%로 정신질환자와 비교했을 때 30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정신질환자가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를 크게 못 미쳤다. 물론, 통계와 별개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결정할 수 있다. 진주 방화·살인사건 역시 안인득의 친형이 정신건강병원 입원을 권유했지만, 생계를 달리하고 안 씨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입원시킬 수 없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허점인 셈이다. 또,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선입견 탓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질병을 숨기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이익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사회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지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선량한 99%의 환자를 혐오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현병에 대한 편견이 심하면 환자와 그 가족은 질병을 덮어두게 돼서 문제를 키울 수 있다. 환자를 품고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나 환자라 해도 범죄가 정당화될 순 없다. 다만 모든 범죄의 원인을 조현병과 연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접근하기보다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된 환자가 없도록 의료체계를 다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더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모든 짐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인득 사건 이후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날의 참극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제2의 안인득을 막기 위한 길이 반성 없는 범죄자를 향한 분노와 조현병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반보드 Chart] 남,여학교 반 미니설문조사

동명고 2학년6반 vs 선명여고 2학년2반

Banboard

〈필동 반보드Chart〉는 매월 남녀 고등학교 각 1개반을 선택하여 청소년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는 코너입니다. 정확한 조사나 통계는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의 생각을 엿볼수 있고 남녀 학생들의 작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코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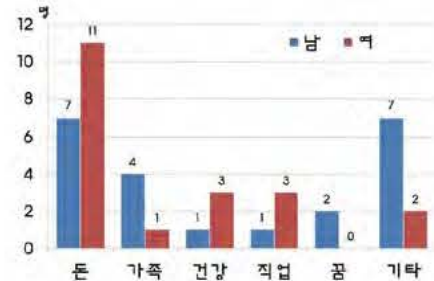
는 동명고등학교 2학년 6반 21명의 남학생들과 선명여고 2학년 2반 20명 여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솔직한 답변, 남녀의 확실한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 등에 집중하면 더욱 재밌게 이번 달 반보드 차트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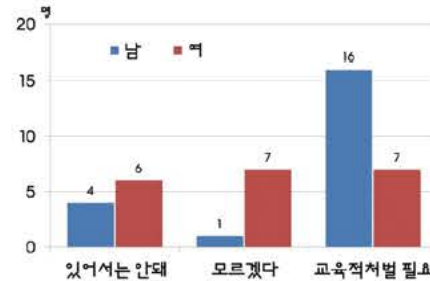
우려와 달리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선명여고의 경우는 '불만'이 단 한명도 없었고 65%이상이 만족스럽다는 답변이었다. 동명고의 경우도 '매우 불만'이라는 학생이 1명 있긴 했지만 80%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학교 안밖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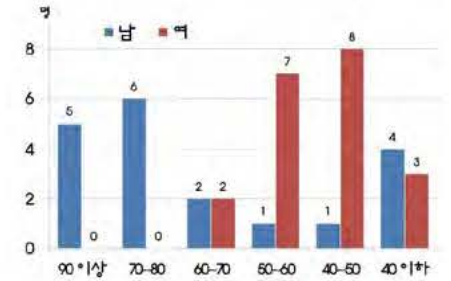
학생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한 질문이다. 씩씩하게도 남, 여학생 모두 '돈'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선명여고는 55%, 동명고는 33%의 학생이 '돈'을 선택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답변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동명고 학생들의 기타의견들이 눈에 띄었다. '나의 행복' '중요한 건 나' '친구' '즐거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기' 등의 답변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학교 내 체벌에 대한 나의 생각은?



학교내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조금 놀랍다. 학생들은 체벌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같지만 항상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선 의외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선명의 경우는 거의 50:50으로 찬반이 팽팽이 맞서는 분위기다. 그런데 동명의 경우는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무려 76%로 압도적이었다.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학생들의 생활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교권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 성평등 의식 수준에 점수를 준다면?



미투운동을 넘어 '스쿨미투' 까지, 성평등 문제는 이제 우리시대가 넘어야 할 큰 과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성평등 인식수준을 어떻게 바라 볼까? 결과를 보면 예상한 것보다 남, 여학생의 생각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명은 70점 이상을 준 학생이 한 명도 없었고 55%의 여학생들은 우리나라 성평등 점수를 50점 이하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동명은 달랐다. 오히려 52% 이상의 남학생이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남, 여학생들 사이의 인식차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찬반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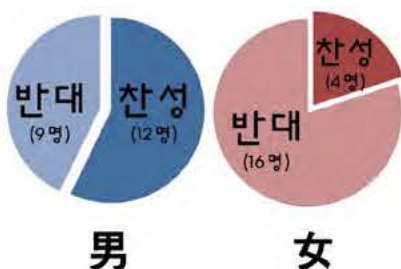
우리사회의 여러 찬반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엿보는 질문도 던져 봤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남학생들은 찬성이 우세했지만 여학생들은 80%가 압도적으로 폐지에 반대를 했다. 최근 일어난 흉악범죄들에 대한 충격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듯 하다.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반대의견이 남, 여학생들 모두 조금 높았지만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갈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고기 식용 합법화에선 남, 여 학생들의 의견이 갈렸다. 여학생들은 90%가 반대의견이었지만 남학생들은 찬반이 비슷하게 맞서 있었다. 조금 재미있는 질문, 연애중인 친구의 성형수술에 대한 찬반에서는 남,



여학생 모두 상대의 수술에 개의치 않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동성결혼 합법화해야 한다?



개고기 식용 합법화 해야 한다?



이성친구가 성형수술을 하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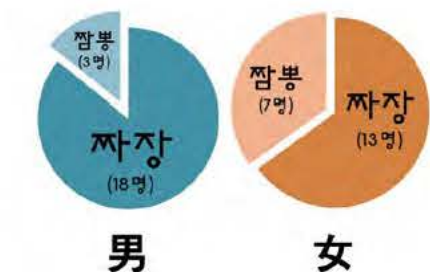


양자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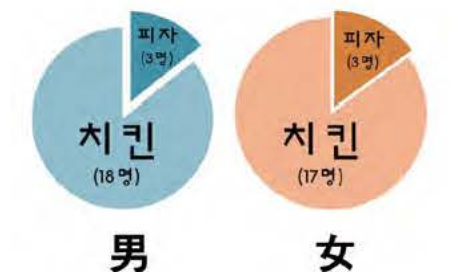
이것이냐? 저것이냐? 가끔씩 우리는 양자택일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 이번 반보드 조사에서는 남, 여학생의 선택이 거의 비슷했다. 짬뽕보다는 짜장을, 치킨은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부

먹보다는 대부분 찹떡을 좋아했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거의 반반으로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았다.

짬뽕 VS 짜장



피자 vs 치킨



부먹 vs 찹떡



김치찌개 vs 된장찌개



[특집] 세월호 참사 5주기, 노란리본을 지을 수 없는 이유

세월호 CCTV 저장장치 DVR이 조작됐다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을 조작했고 국민들을 속였다

당시 정부는 세월호 60개가 넘는 CCTV가 그 날 참사 3분전에 일시에 꺼졌다고 했다. 그러나 침몰 후에도 선내의 단원과 학생들이 보내 준 영상에는 세월호엔 정전이 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세월호 내 CCTV 화면도 송출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었다. 세월호의 모든 CCTV는 저장되지 않고는 화면 송출이 되지 않는 모델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왜 당시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침몰원인과 당시 세월호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CCTV는 참사 3분 전부터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를 조작할 것이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나 말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CCTV영상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늦게 수거한 DVR(CCTV저장장치)이 진짜가 아니고 이미 수거했던 DVR이 따로 있었다는 의혹이 확인된 것이다. 몰래 DVR을 미리 건져내고 그것을 편집, 조작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의 모든 CCTV는 참사 3분전까지만 영상이 녹화된 것으로 국민을 속였다.

국민들과 유가족은 물론이고 아직 구조도 되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수장된 아이들이 바다 밑에 있음에도 이 나라의 정부가, 국가권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는 진실 한 토막은 그 자체로

이를 악물게 하고 분노를 만들어 낸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4월24일, 세월호 선실 내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무려 1800일이 넘었다.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촛불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너무나 기본적인 세월호 CCTV에 대한 제대로 된 질문조차 이제야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어떻게 '세월호가 지겹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아직도 노란 리본이냐'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진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2014년 4월16일에 갇혀 있다.



진주에서도 세월호 5주기 추모 문화제 열어

4월13일 진주교육청 앞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4월13일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월호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는 행사가 진주교육지원청 앞마당에서 열렸다.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모임(이하 세진모)이 주최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문화제이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6명의 발연자가 세월호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참사를 이야기하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어느새,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그 언니, 오빠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을 앞 둔 평범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중앙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정보경입니다. 17살, 꽃다운 나이, 5년 전 꼭 그렇게 불렀던 언니,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딱 6살 어린 제가 모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저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돌아와서 TV 화면에 투입된 세월호와 단원고 그 많은 언니 오빠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있다는 믿기 힘든 현실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전원 구출했다는 뉴스를 보고 집에 갔더니 TV 화면에 투입된 세월호와 단원고 그 많은 언니 오빠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있다는 믿기 힘든 현실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서 세월호는 그리 오래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수학여행이 딱 2일로 줄어든 것에 실망했고 어느새 남의 일처럼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배웠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저장되어 있던 장면들이 살아났습니다.

뒤늦은 충격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죽음의 선배방송, 구조될 거라 믿었던 언니, 오빠들의 카톡 영상들, 심장이 찢어져라 울부짖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는 부모님들의 진여정, 그날 이후 멈춰버린 시간속에서 유가족들은 '자살을 떠올리고 자연스런 일상들이 고통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유가족은 물론이고 세월호 선체 수색과 구조에 참여한 참사자, 진실을 밝히려는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저의 바람과 달리 세월호는 잊혀져 가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세월호, 그 국가적 재난 앞에 아무 것도 아닌 대통령, 너무 화가 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촛불을 들었고 그 날 노란리본에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친구 한 명이 세월호 배지를 단채로 사서 달고 다니자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항상 교복에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거울을 볼 때, 교복을 갈아입을 때, 언제나 노란 리본과 마주합니다. 노란 리본이 안 보이면 진실을 밝히려는 촛불이 나가는 것 아닌가 마음이 쓰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지난 해 '고양, 바다라는 영화도 친구들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잔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나에게 세월호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때의 충격적인 기억,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긴 노란리본, 잊지 않겠다는 약속, 그게 다일까요?

저에게 세월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었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것, 그저 남의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굶어 죽는 아이들, 또 전쟁으로 무참히 죽임 당하는 그들도 그저 남일 순 없다고. 언니 오빠들도 그런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 캄캄한 하늘 아래 숨 죽여 흐느끼고 있을 언니 오빠들 못만큼은 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전에 먼저 반드시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져야겠지요.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날이 밝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려 처벌도 해야 합니다.

어느새,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그 언니, 오빠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수학여행을 앞 둔 평범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소한 것이지만 전 그만해도 될 때까지 교복에서 노란리본을 빼 놓지 않을 겁니다. 또 어디서 들려오든지 '세월호'라는 말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언니 오빠들이 제게 가르쳐 준 사람들, 생명을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세상,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의 1/7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언니 오빠들, 잊지 않을게요 지금까지 부족했던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금 톡톡] 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기준이 뭔가?

청소년은 게임 배졌다! 그런데 게임은 청불세상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게임을 즐긴다. 요즘 게임은 청소년들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일상이 된지 오래다. 게임의 종류는 PC게임, 모바일게임, 콘솔게임 등 종류가 다양하다. 청소년들은 어떤 게임을 즐기고 있을까?

게임 청불 등급은 유명무실?

순위	게임명	비율
1위	리그 오브 레전드	35.7%
2위	배틀그라운드	16.6%
3위	오버워치	7.8%
4위	FIFA온라인 4	5%
5위	카트라이더	3.6%
6위	로스트아크	3.4%
7위	서든어택	3.4%
8위	스타크래프트 : 리마스터	3.1%
9위	리니지 리마스터	2.2%
10위	던	1.9%

〈게임트릭스 조사, PC방 게임 이용 순위〉

온라인 게임 순위 정보 전문 사이트인 게임트릭스에서 4월19일 전국 PC방을 대상으로 PC방 게임 이용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조사했다. 그 중 16.6%로 2위 차지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3.4%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로스트아크, 3.4%로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든어택, 2.2%로 9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니지 리마스터가 이른바 청불게임,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다.

어른들은 자녀들이 게임중독이라고, 스마트폰만 본다며 걱정이다.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게임은 가장 중요한 놀이이자 문화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많이 하는 게임들이 '청불' 이 대부분이란 사실, 그리고 그 청불게임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현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

할까? 게임업체에서는 그래서 15세 이용가 게임을 출시한다. 배틀그라운드와 서든어택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15세 이용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한결같이 제품의 퀄리티가 낮거나,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15세 이용가 게임이라도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보니 실제 이용이 꺼려질 수 밖에 없다.

게임 연령등급을 어기고 게임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 사이에선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인터넷 게임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이나 아이핀(인터넷 개인식별번호)로 실명인증을 하면 청소년도 가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주민번호를 알고, 휴대폰을 30초만 빌릴 수 있으면, 청소년도 손쉽게 성인용 게임 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자칫 주민번호 도용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이 게임 연령 등급을 뛰어 넘는 방법은 또 있다. 외국 앱 스토어(AppStore)나 외국 사이트 게임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실명인증 및 성인인증이 복잡하지 않다. 나이, 국적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이메일로 보내오는 인증번호만 치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는 더욱 연령 인증에 취약하다. 연령 제한이 있어도 가입하는 계정을 성인으로 설정해서 가입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연령 등급이 높은 게임을 CD로 아예 사거나 빌리거나 혹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하는 방법도 있다.

이쯤되면 게임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만들지 않는 이유



청소년 이용게임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제는 '강제적 섷다운제'와 '선택적 섷다운제' 두 제도다. 강제적 섷다운제는 '밤 12시가 넘으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며, 선택적 섷다운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등급을 받을 경우 이 두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모니터링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또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 할 의무'도 있어 위반사례 적발 시 법적책임도 면하기 힘들다.

역설적으로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셈이다. 또한 '선택적 섷다운제'를 적용받게 되면 청소년 가입 시 의무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부모의 요구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도 제한 받게 되는 등 게임운영에 많은 부담이 가게 된다.

더욱이 PC방 등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는 장소에 가보면 규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버젓이 즐기는 청소년들이 아직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에 가입하는 등 규제를 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0.8%가 부르는 선정적 게임광고



모바일 게임의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 앱 분석업체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은 1만8389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게임 중 앱마켓 매출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한 게임은 148개로 나타났다.

매달 1000종이 넘는 모바일 게임이 등장하고, 그중 평균 12개 정도의 게임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매출 100위 진입을 '성공' 이라고 치면 성공 확률, 즉 생존

율은 0.8% 남짓이다. 수없이 많은 게임이 출시되고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출시된 한 모바일 게임의 광고. 이른바 '선정적' 게임 광고로 논란이 되었다. 이 게임은 유명 치어리더를 광고 모델로 앞세웠다. 영상이 지속되는 1분 24초 동안 카메라는 여성 모델의 드러난 가슴, 팔, 허벅지 등을 훑는다.

영상에선 모델의 가슴을 비추며 '만지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어 모델의 입술, 드러난 팔과 허벅지를 보여주며 '터치하지 마세요' 라는 자막이 등장한다. 노출은 계속되고 '그냥 즐겨주세요' 라는 문장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모델이 카메라를 향해 "더 보고 싶어요?" 라는 멘트를 남기며 영상이 끝난다. 이 영상이 게임 광고라는 걸 암시하는 건 모델이 한 손에 검을 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없다.

게임사는 이런 광고를 내보내면 돌아오

2018 세계 게임매출 순위 공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닐슨의 게임 시장 전문 자회사 슈퍼데이터가 2018년도 세계 게임들의 매출 순위를 공개했다. 무료 게임 매출 상위 10위권에는 PC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6종이 자리 잡았다. 한국게임은 2위의 던전앤파이터와 5위에 오른 네오위즈의 크로스파이어가 랭크되

어 있다. 유료게임 순위에서는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 가 1위를 하며 위상을 떨쳤다. '배틀그라운드' 는 2018년에만 10억 2,800만 달러(약 1조 1,573억 원)를 벌어들여 유료게임 1위에 올랐다. 이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의 매출 366억 원이 합산되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순위 내에 '배틀그라운드' 이외의 한국 게임은 찾을 수 없었다. '피파18' 이 8,900억원으로 2위, 오버워치가 4800억원으로 10위에 올랐다.

Fortnite Made Billions in 2018 Despite Being Free-to-Play

Top 10 free-to-play digital games by worldwide revenue in 2018



는 비난을 예상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라도 이목을 끌자' 고 생각했을 것이다. 매월 쏟아지는 1000여개의 게임 중 유저들의 '눈길' 이라도 가는 게임은 대형 · 중견 게임사들의 몇 안 되는 신작과 구글의 '피쳐드' 를 받은 소수 게임뿐이다. 이들 게임도 매출을 보장하기 힘들다. 이쯤 되면 이름 모를 게임사의 신작이 게임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할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어차피 경쟁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고, 눈에라도 띄면 대형인 수준이다.

당연히 광고는 잘못됐다. 선정적 광고는 게임 산업에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

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12세 이상 이용가 게임에 이런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임 광고가 '도' 를 넘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다만 눈살 찌푸려지는 광고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게임 업계의 물을 흐리는 악인이 있다기보다는 되돌리기 힘든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한다. 불황과 양극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기 때문이다. 다양성이 사라진 생태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질어져만 가는 어두운 그림자다.

[취재/ 정보경(진주중앙고1), 박서진(진양고1)기자]

[맏칸년맏반] 진주고등학교 2학년 6반편

유쾌한 인싸들이 모여 있는 패기와 자신감이 열정을 부르는 진고 최강반!

완벽한 조합! 진주고 2학년 인싸들만 모여 있는 반. 넘치는 패기와 자신감. 한 달 만에 옆반정복의 꿈을 벌써 다 이룬 듯한 분위기. 우리 이미 다 친하잖아. 넘치는 우애로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6반~화이링!



모두가 원하는 담임쌤~ 김지현 선생님

진고 최고의 반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김지현 선생님이다. 자칭 교무실 서열 2위로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시다. 실제로 교무실 분위기를 휘어잡으신다고.... 여기까지만 보면 무서운 선생님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진고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착하시고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우리선생님이시다!

나의 이상형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성민	귀엽고 키 작은 여자	잠자는 게 제일 좋아
김강현	성격 툭툭하고 친구 같은 여자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함 X
김동원	키 작고 단발머리 여자	여친 구함
김성우	염색제 XX인 사람	인스타 맞팔 해요X (@castle_u02)
김성주	전화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여자	안녕 난 김성주
김영진	키 165 밀	자고 싶다
김찬유	국밥 원샷 후 트림 한방 때릴 수 있는 여자	카페 앉아서 같이 공부할 사람
문호진	운명	놀아줘
백기현	일편단심인 여자	머영...
백재연	여자 사람	혹시 트로피카나 좋아해요?
성명찬	친구 같은 여자	같이 다이어트 할 사람 ㅠㅍ
손창우	귀여운 여자	민석아 빵 사와
신희엽	나처럼 완벽한 여자	배드민턴은 마약입니다 ㅎㅎ
오민규	예쁜 여자	양팡 버먹
오찬규	귀엽고 애교 많고 키 작은 여자	양호띠~!!
이민호	매주 서부도서관 다니는 여자	나 배고파!
이현모	음식 좋아하고 고기 잘 굽고 밥 잘 사는 여자	나랑 비트코인 갈래?
장준영	청순가련섹시큐티	만편두빵
정민석	귀엽고 재미있는 여자	노래방 분위기메이커/ 폐매해
정민우	이과	명찬아 코골이 때문에 잠 못 자겠어
정성주	키 작고 마음씨 착한 여자	트와이스♥
정해창	착하고 지혜로운 여자	안녕 난 정해창
조영규	키 크고 눈 예쁜 여자	안녕 난 조영규
최두리	너 말고 다	안녕 난 최두리
최인호	단발이 잘 어울리는 여자	안녕 난 최인호
한선우	뭐든 잘 가르쳐주는 여자	소통해요X (insta(s_wooyah18)
화성준	말 많고 재미있는 여자	안녕 난 화성준

이렇게도 멋진 친구들이~!



김찬우 : 2학년 전교부 회장. 언제 어디서나 싱글벙글 웃고 있고, 웃을 때는 주변 주름이 매력인 친구다. 축구며 배구며 다 진고 탐을 먹었고 공부도 잘해서 현재 기숙사 생활 중이다. 최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걸거리 캐스팅을 당했다가 공부하겠다고 거절한 독특한 아력을 갖고 있다.



손창우 : 우리 반의 킹갓반장이자 진고 명문 동아리인 MECA의 부장. 진고 기숙사에 사는 뇌섹남일 뿐만 아니라 친화력도 강해서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언제나 예상치 못한 드림으로 친구들을 뺨 터뜨릴 때가 많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쪼록, 최대의 미스터리다.



정성주 : 유럽 축구 팬이자, EPL 맨체스터 시티 FC의 광팬. 유럽 축구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축구센스는 기가 막힌다. 단지 몸이 잘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다. 성격이 툭툭툭해서 장난을 많이 치고 또 잘 받아준다. 단, 돈지랄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서 이 친구 앞에서는 쓰지 말 것!



김동원 : 2-6반의 축구 1등을 이끄는 에이스 중 한명이다. 사투리가 섞인 특유의 말투가 있는데 이 친구의 트러기 드라마다. 그리고 지니고 기숙사 수문장에 반년 간 생활했던 만큼 멀리도 똑똑한 편이다. 평소 성격이 툭툭한 면이 있지만 존댓말로 친구들을 잘 챙겨주는 친구다.



신희엽 : 수업시간에 묵묵히 앉아있어 조용한 친구일 것 같지만 체육시간이 되면 달라진다. 운동신경이 뛰어나 모든 운동을 잘하고 특히 배드민턴 실력은 모두가 인정한다. 공부는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좋은 성격과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또 모든 노래 소화 가능!



이현모 : 이과생인가 싶을 정도로 공부를 안 하며 야자를 안 하는 게 취미인 친구다. 쉬는 시간 종이 치면 항상 사라지고 시작 종이 치기 전에 모습을 드러낸다. 작년 2학기 때 30kg 감량에 성공했지만 조금씩 돌아가는 중이다. 이 친구에게 덤뻤다가는 빼도 못 추린다는 소문이 있다.



최두리 : 미래의 바리스타를 꿈꾸는 친구이지만 잠만 자고 책만 읽어서 성적이 좋지 못한 편이다. 그래도 공부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건 다 잘하는 편에 속한다. 키 180에 다리가 길어 모델 같은 포스를 내뿜고 얼굴까지 잘생겨서 2학년 6반 얼굴마담을 맡고 있다.



성명찬 : 외모는 선도부 무장이지만 실제로는 홍보부 차장이다. 그리고 2-6반의 물리치료를 맡고 있다. 학교 OT때 가장 무서워 보이는 아이로 뽑힌 특별한 아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별다른 운동 없이 약력 60을 넘긴 과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항상 자신이 연약하다고 주장하는...



김성우 : 죽어도 180이 안되는 179.9. 어지간히 생가먹은 데다가 공부랑 축구도 꽤한다. 맨유와 경남FC의 엄청난 광팬이며 사물함에는 축구 사진으로 도배되어있다. 다음날 학교를 가야 하더라도 새벽에 축구 경기가 있으면 무조건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졌다.



오찬규 : 반에서 인성 좋은 걸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이다. 어떠한 장난도 다 웃으면서 받아준다. 수업시간에 자다가 선생님께 혼나도 다시 자는 우리 반 대표 잠만보. 덩치가 커서 무섭지만 은근 귀여운 부분이 존재한다.



화성준 : 이과생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며, 열이면 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일찍 집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친구이다. 반에서 친구와 학생의 케미를 보여줌으로써 친구들에게 기쁨을 웃음을 준다.



한선우 : 우리 반의 대표 분위기 메이커이자 1타 수학강사. 전교에서 수학 문제를 잘 가르친다고 소문났다. 그냥 수학천재.. 절대음감이 노래도 수준급. 통통한 체격이지만 운동신경이 좋아 대부분 운동을 잘한다. 비록 허당기가 심하지만, 친구들을 일탈살들하게 챙겨주는 친구다.



정민우 : 현재 기숙사 생활 중인 친구다. 스스로 이선균 성대모사를 정말 잘한다고 한다. 근데 성대모사가 아니라 원래 이선균 목소리다.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러 친구들을 뺨 가게 할 때도 있다. 성격은 사인 그래프와 같이 기복이 크다. 농구를 좋아하고 센터를 정말 잘 본다.



강성민 : 평소에는 조용한 친구이지만 얘기를 나눌 때면 씨익 웃으며 귀여워진다. 수업시간엔 조용하지만 체육시간만 되면 180도 달라진다. 축구를 좋아하고 실력이 뛰어나 친구들로부터 진고의 강대, '강대'라 불린다. 지난겨울, 등교할 때 절대 패딩을 입지 않는 고집을 보이기도 했다.



문호진 : 우리 반의 뇌섹남. 기숙사 고인물이며 공부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거나 학습 방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줘서 모두들 문선타라고 부른다. 공부도 음악도 그림도 다 잘하는 다재다능 엔터테이너. 이과인데도 문과적 감수성이 풍부해 가짜 시 짓는 것을 보면 놀랄 때가 많다.



김성주 : 시험을 치면 항상 하위권을 차지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하는 친구다. 보안 쪽에서 엄청난 재능을 보여 '해커'라고 불린다. 성격은 낙천적이고 친구들에게 배려심이 좋은 친구다. 귀여운 면모를 가지고 있어 감행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정민석 : 분위기 메이커 겸 동네북을 담당하고 있는 재미있는 친구다. 키가 180을 넘고 다리가 얇고 길어서 미친 비율을 자랑한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께 '잘하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잘하지'는 6반의 유행어가 되었다. 게임 잘하고 친화력 좋은 전형적인 문과형 이과 친구.

맏칸년맏반 신청바랍니다.

카톡ID : feel1318

이메일 : feel1318@daum.net

①신청인, ②신청학교, ③신청반, ④연락처, ⑤신청이유, ⑥구성내용을 보내주세요.

[취재/ 김찬유(진주고2)기자]

[동아리 탐방] 경상사대부고 경제탐구동아리 E.T.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 인생이란 여행에서도 행복한 코스가 보입니다



〈동아리 부장 2학년 윤종훈〉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경제탐구동아리의 부장을 맡고 있는 2학년 3반 윤종훈 이라고 합니다.

Q. 동아리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저희 동아리의 이름은 E.T. 입니다. 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경제에 대해 부원들과 함께 탐구 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이름 E.T.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 ET가 아니구요. 이코노미 트래블(ECONOMY TRAVEL) 즉 경제 여행을 뜻합니다. 좀 유치하죠? (웃음)

Q.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나요?

⇒ 먼저 특정한 주제를 정해 부원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는 경제 토론을 합니다. 또, 학교 밖으로 나가 경제 관련 시장 조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서로 관심 있는 분야의 부원끼리 각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발표하는 활동도 합니다.

Q. 학교축제때도 특별한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 공정무역 관련 부스를 개설해 공정무역에 대한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활동을 할 예정이고, 공정무역 제품이 상품으로 걸려있는 퀴즈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주로 언제 동아리 활동을 하나요?

⇒ 학교 동아리 시간에 주로 활동합니다. 가끔 주말에도 부원들이 만나 활동을 하기도 하죠.

Q. 어떤 학생을 부원으로 뽑나요?

⇒ 경제를 잘 알고, 공부를 잘 하는 학생보다는 경제에 관심이 있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Q. E.T.만의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 부원간의 친밀감이 높고 같은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진 학생들끼리 활동을 하다 보니 부원끼리 가까워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멘토의 역할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부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동아리 부장으로써 자랑스럽고 든든함을 느낍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요즘 농업이 산업의 대세로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수확물이 어떻게 배송되고, 판매되는지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자수성가한 기업인들



을 찾아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과 조언을 받으며 인터뷰 해보는 활동도 꼭 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못 다한 한마디?

⇒ 경제는 따분하지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알면 알수록 정말 재밌는 분야입니다. 경제가 곧 사람들의 삶이니까요. 경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저희 동아리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T. 파이팅!



〈E.T. 에서 진행되는 스크랩 및 발표 활동〉



[취재/ 원지현 기자]

[기고]

나의 '학생인권조례', 그 희망의 단어!

필통에 글을 쓰기 시작한지 2년이 됐다.

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글을 썼다. 지금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한다. 나는 경남 고성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다녔다. 2학년 겨울방학, '학생인권'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껏 불합리하다고 느껴왔던 일들이 학생인권 침해였음을, 입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열차에서 벌어지는 폭력이었음을, 그리고 그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항하여 싸워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내 삶에서 느끼는 잘못에 저항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이라는 언어를 가지게 되었고 나 또한 그 잘못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새학기가 시작된 3월, 사설 모의고사를 보던 날에 우리 반 담임이 다른 반에서 친구의 뺨을 때리는 일이 생겼다. 나는 학년실에 찾아가 담임과 두 시간동안 말다툼을 했다. 학교는 내게 교권을 침해했다며 생기부에 빨간 줄 긋고 대학을 못 가게 되기 싫으면 자진해서 전학을 가라고 했다. 그렇게 난 집이 있던 진주로 전학을 당했다.

하지만 나는 전학을 당한 후에도 고성중앙고가 좋았고 진주를 떠나 2년을 살았던 고성이라는 동네가 좋았다. 나는 고성중앙고를 바꾸고 싶었고 고성에 있는 학교들을 바꾸고 싶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방법에 꽂히게 됐다. 경기, 서울, 광주, 전북 네 지역에 학생인권조례라는 것

이 있고 법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니! 그리고 학생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니! "이거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 고성의 시민단체 사람들, 진보운동을 하는 노동자·농민들을 만나 고성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함께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했다. 그분들도 흔쾌히 동참하겠노라 말해주셨다. 교사 노동조합인 '전교조'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인권 강연회를 진행하기도

'이런 권리가 있구나, 학교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희망에 주목한다

했다. 경기, 서울, 광주, 전북... 이렇게 광역시·도에만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고성이라는 소도시에서 고성 학생들의 고민을 충분히 담아낸 특색있는 조례를 만든다면 얼마나 멋진까.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가 고성을 떠난 후에 고성에서 계속 학생인권을 외칠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나도 진주에서 활동하느라 바빠진 탓에 시간이 흘러 '고성학생인권조례'는 잊혀진 꿈이 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통제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학교는 더디게 바뀐다. 하지만 나는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희망에 주목한다. '우리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학교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이런 해결

책이 있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학생인권조례의 조항들이 말하는 '두발자유', '체벌 금지',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강제야자 금지', '학생회 자치권 보장'의 가치들에서 느꼈던 나를 지지해주는 듯한 기분, 그 가치들이 이루어진 학교를 상상하며 느낀 떨리는 해방감을 지금 학교에 있는 누군가가 느끼리라 생각한다. 또 누군가는 내가 '고성학생인권조례'를 꿈꿨듯,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들뜬 수 있으리

라고 믿는다.

주말마다 차없는거리에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고 제정 촉구 서명을 모으는 캠페인을 나간다. 조례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 틈틈이 뺨 안 되지!", "이런 거 진짜 필요해" 부터 "(서명지에) 선생님 욕 적어도 돼요?" 까지. 나와 그들이 서명을 통해 만나는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 학생인권이 보장된 학교에 대한 자그마한 상상이라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서명을 받는다.

오는 5월, 경남도의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를 논의한다. 도의회에서 회의가 시작되는 5월 14일 전, 학생인권조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모아내고자 경남학



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서명에 막판 스퍼트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차없는거리에서 절 만나지 못하신 분들,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함께 학교를 바꾸시다. 서명은 인터넷 주소창에 'bit.ly/제정하라'를 치고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목소리내야 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모임 '조례만드는청소년'에 함께해주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조례만드는청소년'이라고 치면 나오니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도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많이들 해주세요! 서명과 '좋아요'까지는 30초면 됩니다!

[글쓴이/ 박태영, 고등학교를 다니며 징계 2회, 강제전학 1회, 자퇴 1회를 겪었으며, 3년째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람으로 존중 받는 세상을 꿈꾸면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조례만드는청소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맏칸년맏반-신청] 선명여고 외식조리과 3학년 11반

실력과 자부심으로 인정받는 아주 특별한 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3학년이된다. 이제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
니다. 진주 유일의 외식조리과, 자부심도 짱, 단합
력도 최고, 멋진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한
고교시절을 잊지 못할 겁니다. 선명여고에서 가장
인정받고 행복한 친구들의 집합소! 우리반을 사랑
합니다!



우리 담임쌤~
조소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은 재작년에 선명여자고등학교에
오신 후 3년째 외식조리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시크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우리들
을 많이 생각하고 잘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
각하고 있어요. 센스만점 재치만점인 저희 담임선
생님 덕분에 재미있게 3학년 생활을 하고 있습니
다. 선생님 살~앙~합니다♥♥

나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나의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미정	없음	집에서 텅굴텅굴 하고 싶다.
강예진	강아지상	개 껌 많이 사줄게 ^^
강은비	라바	꿈틀꿈틀
강하윤	프사 내 사진인 남자	#립스타그램
김 단	키 크고 아빠 같은 사람	우리 장군이 사랑형 ♥
김미주	아라시	아라시 아라시 For Dream
김소민	남성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올래?
김호진	내 눈에 괜찮은..	규~찌 사조라
박재희	(?) 단단	재훈아 사랑해 ♥
배현지	잘생긴 남자	11반 파이팅
서아영	멋진 사람	없음
유영채	나 좋아해 주는 사람	마 자신있네!
윤슬아	상냥하고, 귀여운 사람	아라시, 쿠키 모두 사랑해...g
이화영	♥엑소♥	엑소 사랑하자!
임다빈	예의 있는 사람	사람보단 우리 집 강아지들이 최고야
정민선	성격 좋고 친절한 사람	쉬고 싶다.
정신영	손 크고 성격 좋은 사람	집 가고 싶다.
정운수	성격 좋은 사람	나는 가린이가 제일 좋아.
조영채	웃 잘 입는 남자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최규빈	라코스테남	하은아 같이 쿠키명 셀카 찍자!

스스로 빛나는 수정같은 친구들~



함예은 : 우리 반 반장이며, 키는 163cm인데 다리길이가 143cm이다. 그만큼 비율이 좋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뭐... 좀 이쁘다고 해주자. 목소리가 아빠서 방송무 아나운서이다.



하가린 : 우리 반 무반장이며, 별명이 특이하다. 마가린, 아이가릿 (I GOT IT) 등이 있다. 인자한 말투와 표정으로 우리 반 친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마치 교장선생님처럼... 그리고 우리 반 공부 1등을 맡고 있다!



이화영 : 우리 반 대표 무고름쟁이이다. 매일 무고름을 타면서 할 일은 꼭 하는 매력적이다. 옷을 때가 가장 예쁜데, 안 웃으면 차갑게 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웃고 다닌다.



배현지 : 학교와 집이 제일 가까운데 맨날 지각하는 지각쟁이다. 가끔가다 지각을 하지 않고 빨리 학교를 오면 반 친구들이 모두 박수를 쳐준다. 그리고 남자친구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는 '남자친구 바라기'다. 재수 없지만 나름 재미있고 무렵기도 하다..ㅎ



박재희 : 우리 반 걸그룹 '러블리즈' 3멤버 중 '이쁜이'를 맡고 있다. 우리 반 TOP 3 안에 드는 전지현 님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받아주고 싶지 않은 외모와 꼴렁 거름이 우리 반을 혼란스럽게 한다. 남자친구 자랑을 많이 하지만 전혀 무렵지 않다. 그래도 나름 이쁘게 잘 사귀는 것 같다.



김호진 : 우리 반 걸그룹 '러블리즈' 3멤버 중 '싸가지'를 맡고 있다. 너무너무너무 말랐는데 너무너무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말라서 태풍이 올 땐 반 친구들로부터 외출금지령이 떨어진다. 그리고 목소리가 얼굴에 맞지 않게 귀여운 게 매력 포인트다.



김소민 : 우리 반 '러블리즈' 리더를 맡고 있는 '깜쭈기'이다. 학교에 와서 매일 숙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다지 보고 싶지는 않지만 예쁘고 특이한 숙운들이라 눈길을 사로잡는다. 양쪽 볼에는 무릎을 뜯은 것만양 귀여운 볼을 가지고 있으며, 156cm의 자칭 섹시미녀다.



강예진 : 우리 반 뒤탈미녀 예진 이, 지붕 뚫고 하이킥에 나오는 뽕꾸뽕꾸 해리를 닮았다. 목소리가 북도에서까지 다 들릴 정도로 커서 인간 확장기다. 강예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연장한 것처럼 길고 짙은 아찔한 속눈썹이 그 포인트다.



강하윤 : 우리 반 최단신 친구다. 백설공주 마냥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 숨겨진 매력까지 몽땅 찾아내어 그 매력에 빠져버린 남자친구와도 1년 넘게 사귀고 있다. 배가 고프면 투정을 부리며 찡찡거리는데 귀여우니 살짝 봐주게 된다.



조영채 : 뛰어난 패션 센스로 우리 반 '핵인싸'를 맡고 있다. 누구든 인생 샷을 건져 줄 만한 사진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루에 열 번은 기본으로 빠지는데 빠질 때마다 입꼬리가 배꼽까지 주욱 내려가 바로 알아챌 수 있다. 노래를 잘 부르지만 듣고 싶어도 잘 만나주지 않는 강력한 집순이다.



최규빈 : 우리 반의 말랑 카우 같은 그녀, 나도 모르게 자꾸자꾸 손이 간다. 기본 카메라로 좌우반전이 되어도 얼굴 대칭이 잘 맞는다. 하은(라코스테남)이 노래 부를 때의 코 모양과 같은 큰 콧구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짓말쟁이다.(사실은 김구라 아들이다.)



유영채 : 우리 반의 유일한 남정네, 금강이라도 군대에서 전역한 손이 간다. 기본 카메라로 좌우반전이 되어도 얼굴 대칭이 잘 맞는다. 하은(라코스테남)이 노래 부를 때의 코 모양과 같은 큰 콧구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짓말쟁이다.(사실은 김구라 아들이다.)



김 단 : 우리 반 암벽 소녀이다. 진주시를 대표할 만큼 암벽 실력이 뛰어나서 '스파이더 단'이라고 부른다. 키는 작지만 암벽으로 인해 (유)영채 못지않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항상 뭉 꼬적이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진짜 별거 없다.

진주에는 유일한 외식조리학과가 있다



◀ 외식조리학과 1학년 대상으로 한 교실실습 공개수업 ▶
선명여고는 특성화고로 금융회계과, 경영정보과, 그리고 외식조리과로 이루어져 있다. 진주 유일의 외식조리학과는 외식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기초과목을 이수하고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조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와 관련된 한식/양식/중식/일식 조리사 및 주방장, 제과원, 제빵원, 바리스타 등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조영채외 선명여고 3학년11반 학생들]

[씨네통통] 영화, 레인맨 (Rain Man, 1988)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다! 다시 찾아봐도 후회 없을 감동 영화



쌍둥이같은 연소자관람불가? 이유가?

‘죽은 시인의 사회’ 관계자는 “영화가 많은 아들에게 소설이 원작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 더스틴 호프먼이 서번트 중후군에 걸린 자폐성 장애인 역할을 하여 호평을 받았고 오스카까지 차지하게 된다. 호프먼이 영화 중에 보이는 기묘한 행동은 실제 서번트 중후군 자폐성 장애인의 행동을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매우 사실적이다.

한국에서는 당시 논란이 되던 직배영화 문제(영화인들 반발로 극장 테러까지 벌어졌다.)로 대규모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하고 변두리 재개봉관에서 소리 소문 없이 상영하면서 별다른 성공을 하지 못하고 묻혔다. 하지만 극장흥행이 묻혔을 뿐 비디오로 나오면서 입소문은 꽤 났다. 그런데 비디오판 중에서 초기에 나온 비디오판에는 연소자관람불가로 되어 있는데, 미국 등급인 R 등급(만17세 미만은 보기에 부적절한 등급)을 따랐거나, 장면 중에서 연소자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장면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연소자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장면은 주인공 중 찰리와 찰리의 애인이 침대위에서 민망한 행위를 하는 장면인데 레이먼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무렇지 않게 그 행위를 하는 곳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TV를 보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유두노출도 아주 잠깐 있다.

BEHIND STORY

평론가 로저 에버트는 레이먼드가 사랑스럽지도 측은하지도 않은 무감동한 캐릭터임에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면서 더스틴 호프먼의 뛰어난 연기를 칭찬했다.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더스틴 호프먼은 공중전화 부스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꼽았는데 그 안에서 방귀를 끼는 설정은 없었으나 우연히 방귀가 나와 즉흥적으로 연기를 펼쳤다고 밝혔다.

영화 내용 중 더스틴 호프먼이 항공기는 사고 때문에 타기 싫다면서 항공사별 사고를 줄 줄이 읊어댄다. 톰 크루즈가 “세상에 사고 안 난 항공사가 어디 있느냐?”고 따지자 “판타스 항공은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판타스 비행기 아니면 안된다고 난동을 피운다. 이 장면에 감복한 판타스 항공사에서는 레인 맨 출연진을 포함한 프로듀서들에게 1등석 탑승 쿠폰을 지급했다. 실제로 1989년 당시 판타스는 별 다른 사고가 없었다.

나중에 주요 항공사들이 이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상영하자 베리 레빈슨 감독은 두 주인공이 자동차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장면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베리 레빈슨 감독은 영화 결말부에 레이먼드에게 찰리와 함께 살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정신과의사 역으로 카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 개그맨 ‘신동엽’이 데뷔 직후, 레인맨을 패러디 한 ‘레인맨’이라는 코너에서 주연을 맡아 “안녕하십니까?”라는 유행어를 대히트시키며 유명세를 탔다. 이후 장애인에 대한 희화화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지만 신동엽을 데뷔와 함께 스타로 만드는데 일조한 영화가 레인맨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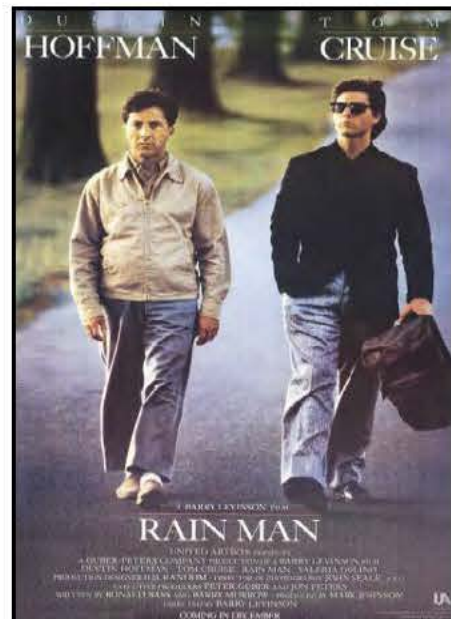


필통기자들과 그 친구들이 함께 오래된 옛날 영화를 한 편 선정, 함께 모여 그들만의 시사 회를 가진다. 감상도 쓰고 평론도 하고 평점도 매겨본다고 한다. 그 다섯번째 시사회의 영화는 ‘죽은 시인의 사회’다. ‘스카이 캐슬’이 화자되고 여전히 입시 지옥이 낯선 수험자가 아닌 2019년의 청소년들은 28년전 존 키팅 선생님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들의 감상평이 기대된다.

‘레인맨 Rain Man, 1988’ 그 제목의 의미는?

‘레인맨’은 성장과 수용에 관한 이야기로, 찰리는 자폐증을 가진 형 레이먼드와 함께 여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장애가 있는 형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 작품은 3억5천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려 1988년에 나온 영화들 가운데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제목 ‘레인맨’의 의미는 찰리와 수잔나, 찰리와 레이먼드의 대화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 찰리는 어렸을 때 두려움을 느끼면 레인맨이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줬다며 레인맨은 자신의 상상속 친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형 레이먼드와 함께 지내면서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줬던 이가 레인맨이 아닌 레이먼드였음을 알게 된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라 레이먼드라는 발음이 어렵다 보니 레인맨으로 불렀던 것이다.



▷장르:드라마 ▷개봉일:1989.05.05(국내)
▷리닝 타임:131분 ▷감독:베리 레빈슨
▷등급:연소자관람불가 [미국 R등급(17세 관람가)]
▷출연:더스틴 호프먼 (레이먼드 배빗 역), 톰 크루즈 (찰리 배빗 역), 발레리아 골리노 (수잔나 역), 제랄드 R. 몰론 (닥터 부르너 역)
▷제작비:2500만 달러 ▷총수입:3억5400만 달러(북미 1억7400만 달러, 해외 1억8천만 달러)
▷수상:베를린 영화제 대상, 금곰상 수상, 아카데미상 4개부문 수상-작품상, 남우주연상(더스틴 호프먼), 감독상, 각본상

필통 시사회 평점

평균 평점 8.9점 ★★★★★



참가자	감상평	내가 꼽는 한 장면	평점
황여준(18) 진주고	초반부에는 찰리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형인 레이먼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갈수록 형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어울리는 모습이 보는 사람의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기분 좋은 영화다.	레이먼드와 찰리바빋이 함께 춤추는 장면	10.0
이재진(18) 명신고	처음엔 형의 행동이 솔직히 짜증도 나고 몇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 행동들이 동생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인 걸 알고 나니 기분이 조금 오묘해졌다. 만약 우리 형이 저랬다면 짜증을 참지 못했을 것 같다.	바빋 형제가 이마를 맞대며 “우리 통했어” 라고 하는 장면	8.5
나영준(18) 중앙고	더스틴호프먼의 자폐증 연기가 뛰어났기에 영화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고 찰리(톰크루즈)가 레인맨이 자신의 상상속 친구가 아닌 자신의 형이란 걸 깨달은 후 전개가 마음에 들었다.	찰리가 레이먼드가 레인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9.5
김혜림(18) 삼현여고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소재를 잘 녹여낸 작품인 것 같다.	처음 만나는 장면	9.0
김가은(18) 제일여고	호프먼의 연기력을 잘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재미와 감동 모두 담겨 있는 영화인 것 같다.	마지막 기차에서 헤어지기 전 “나쁠 땐 하나, 좋은 땐 둘” 이라고 말하는 장면	10.0
박예담(18) 선명여고	처음에 별로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집중하게 되는 영화.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것을 느끼게 해준다. 처음에 찰리는 돈 때문에 형을 데려가지만 나중에 우애가 깊어지는 게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톰 크루즈가 매우 잘생김.	형인 레이먼드의 실수로 오븐이 타고 경보기가 울려 발작을 일으키는 형을 위해 찰리가 경보기를 껐 장면	8.5
강민승(18) 선명여고	자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예를 들면 자폐는 아무 것도 못하는 어린 아이 같다.)을 바꿔주는 좋은 영화이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한번쯤이라도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영화는 열린 결말이라 조금 아쉬웠다.	카지노에서 레이먼드의 특징인 기억력으로 빗이 많은 동생 찰리를 위해 활약을 하고 초호화 호텔에서 레이먼드와 찰리가 춤을 추는 장면.	7.0
박종영(18) 중앙고	찰리에게 있어 이름뿐인 형을 처음엔 이용하려 했으나 과거 자신과 놀아주던 레인맨이 레이먼드임을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연출한 영화다.	형제와 의사가 만나 상담을 한 후 찰리가 레이먼드에게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장면	8.5

[취재/ 김가은(제일여고2), 정병민(진주고2)기자]

[SNS 맛집 탐방] 진주 대안동 디델리 라볶기

라볶기가 땡길 때, 우리는 차없는거리 디델리로 간다?



요즘 학생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자주 먹을까? 아마도 남,여 학생을 불문하고 “떡볶이” 라는 답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를 말해 주듯 진주 시내엔 다양한 떡볶이 가게들이 즐비하

다. 이번 <SNS 맛집 검증> 코너에선 한 자리에서 15년 동안 변함없이 떡볶이 매장을 운영중인 ‘디델리’ 라볶기집을 찾았다.



★디델리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69번길 3-1(대안동 14-5)/차없는 거리내에 위치해 있다. 15년 동안 같은 자리, 같은 사장님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디델리는 2층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식당임을 입구에서 느낄 수 있다. 계단에 올라가면서 보이는 낙서들! 손님들의 눈길을 잠시 잡아둔다.



• 라볶이	₩5,000
• 라볶이매운맛	₩5,500
• 치즈 라볶이	₩6,500
• 참치김밥	₩3,000
• 치즈김밥	₩3,000
• 야채김밥	₩2,800
• 땡초참치김밥	₩3,500
• 오븐라베리페	₩6,500
• 해물라베리페	₩6,500
• 해물볶음밥	₩6,000
• 라면	₩3,000
• 우동	₩4,500
• 음료수	₩1,500

주메뉴는 라볶기와 참치김밥이다. 필통기자들은 정통라볶기와 치즈라볶기, 그리고 참치 김밥을 주문했다. 음료는 캔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사장님께서 라볶이 그릇 뜨겁다고 조심하라고 말해주신다! 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잠깐 INTERVIEW]

★사장님~궁금해요

Q. 가장 인기 있는 메뉴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볶이와 참치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라볶이에는 독특한 소스를 사용해서 학생들 입맛에 딱 맞아요. 그리고 참치김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참치김밥과 재료는 같지만 비싼 참치를 사용하고, 참치의 기름을 짭 빼서 담백하게 만들어요. 또, 느끼하지 않도록 마요네즈를 사용해 고소하게 만들어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비법 소스는 본사에서 내려 오고 참치는 동원참치를 사용한다고~

Q. 방문하는 손님들의 연령대는 주로 어떤가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자주 찾아와요. 저희는 15년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단골이 참 많아요. 옛날 그 시절의 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해요. 저희 가게는 가족끼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어요. 오래된 가게라 예전만큼 손님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꾸준히 오는 단골손님들이 계시고 항상 나가시면서 마음이 담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힘내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Q. 메뉴 중 ‘오븐라베리페’가 있는데, 어떤 메뉴 인가요?

스파게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븐라베리페’는 채소와 과일로 숙성시킨 소스를 넣기 때문에 스파게티랑은 또 다른 맛이 나요. 최근 많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요.

Q. 사장님만의 추천메뉴는?

—치즈 라볶이 보다는 일반 라볶이를 추천합니다. 일반 라볶이가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운 떡볶이 같은 경우는 많이 맵지 않고 일반적인 매콤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치김밥을 많이 찾으시지만 땡초참치김밥도 드셔 보시길 추천 드려요. 그리고 저는 해물라베리페 보다는 오븐라베리페가 더 맛있더라구요.

★필통기자들의 솔직 후기★

(치즈)라볶이



김세희기자(선명여고2) 요즘에 많이 대세가 되는 떡볶이와는 다르게 자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디델리’ 만의 장점인 것 같고, 처음 먹는 것이라면 치즈라볶이 보단 일반 라볶이를 먹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또, 떡의 종류가 다양해서 먹는 재미가 있었고, 계란을 따로 주문하지 않고 떡볶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센스 넘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떡볶이를 좋아한다면 한번쯤은 가보면 좋을 것 같다.

김민수기자(경남예고2) 먼저 먹었을 때 ‘맵다’ 라는 느낌보다 ‘달다’ 라는 느낌을 가장 먼저 느꼈다. 그런데 느끼하지 않고 적당히 달아서 먹기가 좋았고 맛있었다. 확실히 메인메뉴답게 그리고 학생들 입맛을 고려해 만든 음식답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 같았다.

오븐라베리페



김세희기자(선명여고2)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땐 먹고 싶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맛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오븐 스파게티 비주얼이지만 면이 우동면이다. 괜찮았지만 라볶이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라볶이와 오븐라베리페를 함께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둘 다 양이 많아 남길 수도 있고 라볶이에 라면이 함께 있어서 오븐라베리페가 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김민수기자(경남예고2) 이름만으로 어떤 메뉴인지 몰랐는데 먹어보니 스파게티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스파게티와 미묘하게 다른 맛과 느낌인 음식인 것 같아 신기했다. 면도 두꺼운 면을 사용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참치김밥



김세희기자(선명여고2) 마요네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참치와 잿빛, 마요네즈의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진 느낌이었다. 라볶이와의 조합도 괜찮았다. 특히 라볶이소스에 찍어 먹어 보시길 강추한다. 메인메뉴인 라볶이에 가려진 듯 하지만 참치김밥 때문에 다시 찾고 싶을 만큼 좋았다. 15년의 전통이 느껴지는 듯 했다.

김민수기자(경남예고2) 평소 느끼함이 싫어서 참치김밥을 잘 먹지 않는데 취재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 밖으로 굉장히 담백한 맛에 조금 놀랐다. 마요네즈가 있었음에도 느끼하지 않았고 라볶이와 함께 먹어도 그 조합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의 반응?



“치즈라볶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찌 매번 올 때 마다 똑같은 맛을 내는지 놀랍니다. 다른 집들은 갈때 마다 맛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디델리 라볶이는 정말 똑같이 먹을 때 마다 같은 맛으로 맛있습니다. 고수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때 부터 쭉 먹어오던 추억의 디델리 변함없이 맛있습니다.”

“진주 디델리는 중고등학생들의 단골집이죠! 그 단골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많이 찾는 집인 것 같아요. 치즈라볶이 강추합니다. 갈때마다 항상 그 맛인 것 같아요! 라볶이 안에 가래떡도 있지만, 떡국떡도 있고, 만두, 계란, 라면사리가 있어 좋아요.”

[필통번역실] 영화 침밀밀의 OST 침밀밀

甜蜜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영화 그리고 노래

교과목 중 제2외국어가 있다는 것,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알 것이다. 주로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요즘 취업 준비를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제2외국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2외국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영어는 미국 드라마를 통해 회화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로 된 음악을 감상하며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가사를 통해 문법 실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중국어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있는 노래 한 곡을 번역해 보았다.

꿀처럼 달콤하다는 뜻의 침밀밀!



영화 침밀밀의 삽입곡으로 널리 알려진 이 곡은 원래 인도네시아 민요인데 등려군이 불러 크게 인기를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I'm still loving you'란 제목으로 변안되어 불렸는데 연인의 달콤한 미소가 마치 봄바람 속에 핀 꽃과 같이 화사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익숙지 않은 발음일 수 있으나 음악과 함께 들어보면 당신도 침밀밀의 꿀처럼 달콤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甜蜜蜜你笑得甜蜜蜜

tiánmì mǐ nǐ xiàode tiánmì mǐ
티엔미미니샤오더티엔미미
너무 달콤해요 당신의 웃음이 너무 달콤해요

好像花儿开在春风里

hǎoxiàng huā kāi zài chūnfēng lǐ
하오샹화얼카이자이첸펑링리
마치 봄에 피는 꽃 같아요

开在春风里

kāizài chūnfēng lǐ
카이자이첸펑링리
봄에 피는 것 말이에요

在哪里在哪里见过你

zàinǎ lǐ zàinǎ lǐ jiànguò nǐ
자이나알리자이나알리지엔귀니
어디서 어디서 당신을 보았죠?

你的笑容这样熟悉

nǐ de xiàoróng zhè yàng shú xī
니디샤오룽저양슈씨
당신의 웃음이 이렇게나 익숙해요

我一时想不起

wǒ yí shí xiǎng bù qǐ
위이실쌍부치
얼른 떠오르지가 않아요

啊~~在梦里

azàimèng lǐ
아 자이멍리
아 꿈속에서 만났어요

梦里梦里见过你

mèng lǐ mèng lǐ jiànguò nǐ
멍리멍리지엔귀니
꿈속에서 꿈속에서 당신을 만났어요

甜蜜蜜得多甜蜜

tiánmì xiàode duō tiánmì
티엔미미샤오더둬티엔미
달콤해요 웃는게 너무 달콤해요

是你~是你~梦见的就是你

shì nǐ shì nǐ mèngjiàn de jiù shì nǐ
실니실니멍지엔더지오우실니
바로 당신이예요 당신이예요 꿈속에서 만난 그대

在哪里在哪里见过你

zàinǎ lǐ zàinǎ lǐ jiànguò nǐ
자이나알리자이나알리지엔귀니
어디서 어디서 당신을 보았죠?

你的笑容这样熟悉

nǐ de xiàoróng zhè yàng shú xī
니디샤오룽저양슈씨
당신의 웃음이 이렇게나 익숙해요

我一时想不起

wǒ yí shí xiǎng bù qǐ
위이실쌍부치
얼른 떠오르지가 않아요

啊~~在梦里

azàimèng lǐ
아 자이멍리
아 꿈속에서 만났어요

在哪里在哪里见过你

zàinǎ lǐ zàinǎ lǐ jiànguò nǐ
자이나알리자이나알리지엔귀니
어디서 어디서 당신을 보았죠?

你的笑容这样熟悉

nǐ de xiàoróng zhè yàng shú xī
니디샤오룽저양슈씨
당신의 웃음이 이렇게나 익숙해요

我一时想不起

wǒ yí shí xiǎng bù qǐ
위이실쌍부치
얼른 떠오르지가 않아요

啊~~在梦里

azàimèng lǐ
아 자이멍리
아 꿈속에서 만났어요

梦里梦里见过你

mèng lǐ mèng lǐ jiànguò nǐ
멍리멍리지엔귀니
꿈속에서 꿈속에서 당신을 만났어요

甜蜜蜜得多甜蜜

tiánmì xiàode duō tiánmì
티엔미미샤오더둬티엔미
달콤해요 웃는게 너무 달콤해요

是你~是你~梦见的就是你

shì nǐ shì nǐ mèngjiàn de jiù shì nǐ
실니실니멍지엔더지오우실니
바로 당신이예요 당신이예요 꿈속에서 만난 그대

在哪里在哪里见过你

zàinǎ lǐ zàinǎ lǐ jiànguò nǐ
자이나알리자이나알리지엔귀니
어디서 어디서 당신을 보았죠?

你的笑容这样熟悉

nǐ de xiàoróng zhè yàng shú xī
니디샤오룽저양슈씨
당신의 웃음이 이렇게나 익숙해요

我一时想不起

wǒ yí shí xiǎng bù qǐ
위이실쌍부치
얼른 떠오르지가 않아요

啊~~在梦里

azàimèng lǐ
아 자이멍리
아 꿈속에서 만났어요



노래듣기



《침밀밀》, 우리에게 등려군을 선물하다

홍콩 멜로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침밀밀'. 세상에 이런 멜로 또 없다. 소군과 이요의 안타까운 사랑을 절제된 감정으로 연기한 여명과 장만옥의 연기와 진가신 감독의 연출은 두 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리고 영화의 또다른 주인공인 등려군. 그녀의 노래들은 영화를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이다.

등려군은 1953년 대만에서 태어났다.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인기 드라마의 주제를 부르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중화민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활동했고 20살이 되던 해부터 일본 활동도 시작했다. 이토록 아시아 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가 한창 활동하던 1970~80년대에 우리나라의 외교적 상황 때문인 듯하다.

등려군은 천안문 사건 반대집회 등 중국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홍콩

으로, 또 파리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모습을 감추었다. 섬뜩하게도 겨우 30대 중반이던 1990년 즈음부터 등려군이 죽었다는 루머가 주기적으로 돌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1995년 5월, 치앙마이의 한 호텔에서 진짜로 사망했다. 향년 42. 타이베이에서 국장급의 장례가 치러졌고 전세계 3만여명의 팬들이 몰렸다. 타이베이시 동북에 자리하고 있는 그녀의 묘에는 음향장비가 설치되어 그녀의 노래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한다.

[취재/ 전규원(경해여고2)기자]

[필통뮤직차트] 비가 오면 생각나는 노래 CHART!

여러분은 비 올 때 어떤 무슨 노래 듣고 싶나요?

봄이면 자주 비가 내린다. 여름이 오기 전 장마가 또 우리를 기다린다. 학생들에게 비는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다. 등하굣길도 불편하고 습도 높은 교실도 쾌적함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비'는 분명 청소년들에게도 평소와 다른 또 다른 감성을 불러 일으킨다. 청소년들은 비가 오면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 할까? 이번 <필통뮤직차트>에선 진주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비가 올 때 듣는 노래를 조사해 봤다. (진양고 2학년 여학생 20명, 대이고 2학년 남학생 20명)

[진양고-대이고 학생들이 추천한 노래]

대이고 남학생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15 ▶윤하 (우산) 7 ▶이승철 (서쪽하늘) 5 ▶폴킴 (비) 4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4 ▶태연 (rain) 2 ▶아이유 (raindrop) 2 ▶멜로디 데이 (비가 내리면) 1
진양고 여학생	▶헤이즈 (비도오고 그래서) 3 ▶비스트 (비가오는 날엔) 2 ▶소유, 백현 (비가와) 2 ▶폴킴 (비) 2 ▶이소라 (신청곡) 2 ▶정기고 (그리고 그러도)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언니네 이발관 (가장보통의 존재) ▶전상근 (그대 없는 방에) ▶정준일, 윤종신 (말꼬리) ▶윤하 (우산) ▶로XX (복두칠성) ▶닐로 (바보) ▶김윤희 (비가 내려) ▶홍광호 (물속에 잠긴 시간) ▶1414 (선을 그어주던가)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비스트 (Hey Jude) ▶Clod play (Fix you) ▶케이시 (그때가 좋았어) ▶케이시 (비와와라) ▶여자친구 (여름비) ▶유주 (Love Rain) ▶비토벤 (운명교향곡) ▶태연 (Rain) ▶아이유 (Rain drop) ▶마마무 (장마) ▶BTS (Rain) ▶I.O.I (소나기) ▶엔플라잉 (옥탑방) ▶정승환 (잘지내요) ▶아이유 (마음) ▶비투비블루 (비가내리면) ▶헤이즈 (그러니까)

감성의 차이일까? 남, 여학생들의 설문 결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남학생들이 추천한 노래는 8곡 뿐이었는데 반면 여학생들이 추천한 노래는 무려 34곡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아마도 남학생들은 '비'라는 키워드에 집중해 제목이나 노래 가사에 '비'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들을 추천한 반면 여학생들은 비가 올 때 느껴지는 분위기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래들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설문 결과 '비가 올 때 듣는 노래 추천' 1위곡은 가수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였다. 가수 신용재의 피쳐링과 함께 2017년 06월 26일 음원이 발매 되었다. 가수 헤이즈와 다비가 작곡하고 헤이즈가 작사한 '비도 오고 그래서'는 음원이 나온 후 2주 동안 음원차트 1위를 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비 오는 날 헤어질 연인을 생각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비가 오는 날이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다.

여학생이 추천한 노래 중에서 '비토벤 - 운명교향곡'이 추천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중가요 노래, 특히 발라드 장르에 속하는 노래들을 추천했지만 한 학생은 이와 달리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추천했다. 비 오는 날 발라드 말고 클래식을 듣는 친구도 있었다.

순위에 오른 노래들의 가사 내용은 어떻게 궁금하다. 1위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는 비가 오는 날, 헤어질 연인과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사에 담았다. 2위 '에픽하이(feat.윤하)의 우산'은 연인과 헤어지고 난 뒤 불안정한 자신의 모습을 비를 보며 느끼고 우산을 쓰고 있는 그 쓸쓸함을 노래한다. 3위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은 비가 오는 날이면 자존심 때문에 떠나가는 연인을 잡지 못해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사로 옮겨져 있다. 공동 4위를 차지한 '태연의 rain'은 비 오는 날 연인과 함께 해서 행복했던 기억을 회상하는 내용이고 '아이유의 rain drop'은 비 오는 날 혼자 길을 걸으며 헤어질 연인에게 잘 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가사다.

우연의 일치인지, 비와 관련 된 노래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인지, 이번 조사에서 순위에서 랭크된 모든 노래들의 가사 내용은 헤어질 연인과의 추억과 헤어짐 이후의 쓸쓸함을 가득 담고 있었다.

[필통뮤직차트 순위]

순위	곡명	진양고	대이고	합계	앨범발매일
1	헤이즈 비도오고 그래서	3	15	18	2017. 06.26.
2	에픽하이(feat.윤하) 우산	2	7	9	2008. 04.17.
3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2	4	6	2011. 05.12.
4	태연 Rain	1	2	3	2016. 02.03.
	아이유 Rain Drop	1	2	3	2010. 06.03



<1위 - 헤이즈, 비도오고 그래서>

BTS 빌보드200 세 번째 정상등극! 핫100 1위 가능할까?

그룹 방탄소년단(사진)이 미국 빌보드에서 11개월 만에 또 다시 정상에 등극했다. 세 번째다. 1년 안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3장 앨범을 올려놓은 그룹은 비틀스 이후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 차트 역사에서 전통적인 그룹 가운데, 비틀스가 세운 마지막 기록인 11개월 1주보다 빠른 시간에 3연속 정상을 달성했다.



빌보드는 4월21일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 (Map of the Soul: Persona)가 '빌보드 200' 최신차트(4월27일자)에서 세 번째 1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빌보드는 "지난 1년 동안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비(非)영어권 앨범 4장 중 3장이 방탄소년단 앨범"이라며 "발매 첫 주 앨범 판매량으로는 방탄소년단 자체 최고 기록이자 올해 그룹으로는 두 번째, 전 세계 아티스트로는 네 번째로 높은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8위에 올랐다. 지난 bts가 지닌 '핫 100'의 최고 순위였던 '페이크 러브'(Fake Love)의 10위에서 두 단계 더 오른 순위여서 bts가 내는 앨범마다 내는 곡마다 새롭게 K팝 그룹의 기록을 써가고 있다.

빌보드에 따르면 bts의 두 번째 '탑 10' 진입이자 K팝 그룹으로 최고 기록이라며 지난 2012년 사이의 '강남스타일'의 2위, 2013년의 '젠맨' 5위에 두번째 가수이자 세번째 기록이라는 것.

빌보드 200' 차트를 점령한 방탄소년단의

다음 목표는 이제 싱글 앨범 차트인 '핫 100' 차트다. '핫 100' 차트는 온라인 음원 다운로드 횟수, 미국 라디오 '에어플레이' 방송 청취자 수, 온디맨드(On Demand) 음원 다운로드 횟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조회 수 등이 모두 반영돼 순위로 매겨진다.

'핫 100' 차트 한국 가수 최고 기록은 2012년 전 세계적 열풍을 이끈 싸이 '강남스타일'이 기록한 2위다. 당시 '강남스타일'은 7주 연속 2위에 오르며 1위 등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아쉽게도 1위에 오르지 못했다. 그때 1위가 마룬 5의 '원 모어 나잇'(One More Night)이었는데 결정적으로 방송 횟수에서 격차를 줄이지 못했던 게 크게 작용했었다. 결국 현재 bts는 싸이와 함께 '핫 100'의 10위안에 두 개의 노래를 진입시킨 가수가 됐다.

BTS멤버 RM이 지난해 5월, 첫 빌보드 200 차트 정상 등극 후 '우선 당연히 핫 100에서 연젠키는 1등을 해보는 게 저희의 숫자로 보는 구체적 목표입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2위 - 에픽하이, 우산>



<3위 -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4위 - 태연, rain>



<4위 - 아이유, Rain Drop>

[I'M FASHION PEOPLE] 정서인(중양고1) & 심희주(대야고2)

나를 표현 하는 것 & 내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10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부분 교복을 제일 많이 입게 된다. 자신을 꾸미기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조금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똑같은 교복이 아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신을 패션을 코디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상의 경험이다.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주위 친구들을 찾아 그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어 보았다. 나름 패션리더를 자칭하는 친구들을 어떤 옷, 얼마짜리 옷을 입을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2를 뭐 입지?



FASHION PEOPLE

심희주 (대야고 2)

"나에게 패션은 가로등"

TYPE 1



TYPE 2



필통패피! 6문 6답

Q. 나에게 패션이란?

가로등 같습니다. 평범한 나를 빛나고 다르게 만들어 주니까요.

Q. 가장 애용하는 쇼핑몰이나 브랜드?

쇼핑몰은 잘 이용하지 않고 시간이 날 때 부산 구제샵이나 편집샵 에서 옷을 구입합니다. 브랜드는 칼하트 블라드블라디스 정도?

Q. 평소 옷 입는 스타일?

살짝 후줄근한(?) 다크웨어에 아이템 하나씩 포인트를 줘서 입는 편입니다.

Q. 도전 해보고 싶은 스타일?

블랙톤을 좋아하는데 고양이 털 때문에 검은 옷 관리가 힘들어요. 검은색 말고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어 보고 싶습니다.

Q. 최근 가장 아끼는 옷?

저는 사실 옷 보다는 신발을 더 아끼는 편입니다.^^ 1달 고생해서 구입 한 '이지500솔트'가 지금 제겐 넘버원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옷을 못 입는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개성이 있다는 겁니다. 옷을 고를 때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보다 내가 어떤 옷이든 어울리게 할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FASHION PEOPLE

정서인 (진주중양고 1)

"패션은 나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TYPE 1



TYPE 2



필통패피! 6문 6답

Q. 나에게 패션이란?

나를 표현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패션으로 개성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Q. 가장 애용하는 쇼핑몰이나 브랜드?

'87mm' 이요. 모델이 운영하는 브랜드예요.

Q. 평소 옷 입는 스타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슬랙스, 맨투맨, 후드티 같은 옷을 즐겨 입지만 상의 컬러로 포인트 줘서 발랄하게 입는 거 좋아해요.

Q. 도전해 보고 싶은 스타일?

힙합을 좋아해서 힙한 옷들, 스트릿 패션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잘 소화해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Q. 최근 가장 아끼는 옷?

앞서 말한 브랜드 87mm의 라벤더 색 맨투맨 인데요! 방탄소년단 제이홉씨랑 커플티예요. 색도 예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옷이 같아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패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나를 마음껏 나타낼 수 있어서 좋아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마음껏 표현해주세요. 우리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JOB을 잡아라] 교육복지사 강경화 선생님을 만나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고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길...

Q.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중학교 교육복지사 강경화입니다.

Q. 교육복지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학교내의 사회복지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죠. 학습, 문화체험, 심리 정서, 상담, 복지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하면 교육복지사가 될 수 있나요?

A. 교육청에서 채용을 하구요. 물론 선발기준이 있죠. 2007년부터 교육복지우선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복지사를 두게 되었는데 그때에 전공자격(교육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전공)과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교육청에서 뽑았어요.

Q.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전 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네요. 처음 교육복지사가 생긴 이유가 학생들의 교육기회균등, 출발점 평등과 관련이 있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솔직히 각자의 가정환경이나 빈부의 격차등으로 누구나 기회와 경험 평등하다 할 수 없잖아요. 더구나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학생들은 인생의 시작과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성장과 교육에서부터 차별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

고 교육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하나로 교육복지사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Q. 그런데 왜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없나요?

A. 맞습니다. 각 도 교육청 별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둘 수 있는 기준이 달라요. 일종의 선별적 복지 개념이 있어요. 모든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보니 지원 받을 학생들이 몇 명이나에 따라 또 그 비율에 따라 교육복지사 배치 유무가 결정이 된답니다. 되도록 더 많은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있었으면 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아직은 쉽지는 않습니다.

교육 복지사는 가치가 높은 직업, 긍정의 마인드와 따뜻한 시선으로 도전해 보세요

Q. 월급은 일반 학교 교사들과 같나요?

A. 학교에 똑같이 근무는 하지만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급여체계는 다르죠. 물론 근무는 정년까지 가능합니다.

Q. 학교에서 이것만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A. 제 희망사항인데 일반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가르치는 분들은 가르치는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들은 단순화하고 따로 전담팀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Q. 교육복지사로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A. 아무래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복지사라는 직업이 처음 생겼을 때 복지와 교육을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 생소했고, 그 일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가라고 해서 왔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처음은 힘들잖아요. 지금은 경험도 쌓이고 역할도 구체화 되었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맞나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Q. 학교에서 '저소득층 친구들' 이렇게 구분되면 그 친구들이 싫어하지는 않나요?

A. 처음에는 그런 불편한 낙인이 찍힌다는 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복지실에서 불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을 바꿔줄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 가난이나 가정 환경 등이 학생들의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모락모락 문화체험 농구경기 관람중에〉

당연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면 된다.' 라고 얘기 합니다. 절대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라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럼 그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또 친구의 친구를 데려오면서 교육복지실은 거부감이 사라지고 편한 공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 여러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됩니다.

Q.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A.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제가 하는 일은 참 가치가 높은 직업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만났던 아이들은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나이가 한참 들어서 기억을 찾아 다시 돌아오고,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찾아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생각, 제 직업의 가치가 너무 높고 보람 있다고 느껴 질 때가 많습니다.

Q. 학생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인가요?

A.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자존감이

낮고 책임감이 낮은 학생들이 그런 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제일 실망스러워요. 안타깝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자신을 함부로 할 때 내색은 못하지만 답답할 때가 있어요.

Q. 교육복지사는 어떤 친구들에게 권유할 만한 직업인가요?

A.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고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회복지학, 교육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어요.

Q. 교육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A.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자체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좋은 변화를 만드는 에너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Q.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

A.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받은 혜택을 지역을 위해 다시 나누는 사회 환원-하랑봉사단〉



〈대학 국어과와 연계한 장흥 문학기행〉



〈교육실습생에게 하는 학교복지정책 연수〉

교육복지사가 되려면



교육복지사. 쉽게 말하자면 일반 학교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뜻합니다.

학생들의 학습전략이나 진로탐색, 자원봉사, 또래상담 등 심리검사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 해주기도 하고 폭력예방이나 가정방문, 부모상담을 통해 더 나은 학교생활 추진 장학금이나 생활보조금 등 연계를 해주어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교육복지사 의무배치가 시행되어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교육복지사 되는 방법은?"

[필수조건]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한 자
3. 아동복지론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이 3가지 모두를 충족하면 되고 다음으로 선택조건을 볼게요.

[선택조건]

1.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한 자
 2.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이상 근무한 자
 3.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세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하면 학교사회복지사가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1급은 국가고시 시험이 있고 2급이 있어야 1급을 응시할 수 있죠. 최종학력이 전문대졸인 분들은 2급을 취득하고 나서 1년간 실무경험

을 쌓는다면 1급 시험을 볼 수 있고 4년제 졸은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1번 1월에 응시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좋겠죠.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2급의 경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실습을 다녀오면 되는데 최종학력에 따라 듣는 과목의 수와 소요기간이 달라져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는 분들은 약 2학기과정이고 고등학교 졸업자인 분들은 약 3~4학기 정도 걸리죠. 2급은 국가고시가 없고 강의 듣고 실습만 다녀오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2급 → 1급 → 필수, 선택조건 충족 하면 학교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홈베이스는 도난 기지인가?

학교내 절도 예방 대책과 교육 매뉴얼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중품들을 들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갑 자체가 고가의 브랜드 제품일 경우도 있고, 방과 후 쇼핑을 목적으로 돈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 또 스마트폰 자체가 고가인 경우도 흔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느 학교나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귀중품은 아니지만, 남학생들의 축구화, 여학생들의 화장품, 학생들이 쓰는 볼펜 지우개, 체육복까지.. 도난당하는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사물함이 교실이 아닌 복도에 놓이는 일명 '홈베이스'가 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 사물함에 지갑, 교과서, 체육복 등 자기 물건을 넣어 놓는다. 사물함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복도에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수업을 위해 이동하다보면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다른 학생의 사물함을 아무렇게 열어보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물함은 도난에 쉽게 도출되어 있다. 실제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홈베이스 혹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은 돈과 교과서다. 홈베이스가 설치되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대비책 또한 필요하다.

건물생식, 순간적인 실수로 한 번 쯤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학교내 절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한 번 절도를 하면 반복해서 그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물함에 자물쇠를 거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사물함을 열어 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학

생들이 자물쇠를 직접 구매해야 하고 사물함을 열 때마다 열쇠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열쇠 분실로 자신의 사물함을 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비밀번호 타입의 자물쇠는 보안이 약해 쉽게 비밀번호가 뚫리거나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CCTV를 설치하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홈베이스의 구조 때문에 CCTV가 감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아 효과가 크지 않다. 그렇다고 CCTV에 맞게 홈베이스 구조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한 무조건 CCTV를 늘리는 것만이 상책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의 문제도 중요한 만큼 최소화 해서 적어도 학생들의 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CCTV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교실제 확대로 인해 앞으로 홈베이스가 있는 학교는 계속 늘어 갈 것이다. 사물함 뿐



아니라 학교내의 절도 사건은 중요한 문제다. 물론 사소 하더라도 범죄 행위를 하는 학생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절도가 생길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한 학교의 범죄 방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분명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이같은 절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학교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취재/ 장은령(진양고)기자]

너희 학교 시험기간 몇 일간이야?

학교마다 다른 시험일수, 학생들에게는 중요하고 예민해

개학을 했다 싶었는데 4월, 불기운이 절정일 때 쯤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인 학생들을 찾는다. 학교에 다니면 주기적으로 치르는 행사가 있다. 바로 시험이다. 항상 학생들을 괴롭히는 시험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시험일수에 대한 불만은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교에 따라 어떤 학교는 3일, 어떤 학교는 일주일 동안 시험을 치른다.

학생들은 보통 4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총 4번의 중요한 시험을 친다. 중간, 기말고사다. 대입이 정시보다 수시로 추세가 기울고 있는 요즘, 시험 성적은 대입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성적에 유리한 시험 시간표를 잘 짜줘야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고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우선으로 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렇다

면 꼭 시험기간은 길어야만 할까? 4~5일 시험을 치르는 경우, 상대적으로 긴 시험기간은 하루하루 치르는 과목의 양이 적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또 일명 '벼락치기'의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시험일수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시험을 치다보니 긴장감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시험일수와 관련해 시험 기간 중에 공휴일이 끼여 있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역시 좋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충분한 연휴기간으로 천천히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학교 친구들은 다 쉬는데 편히 쉬지 못하는 것에 불만인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또 시험 치는 날 자율학습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찬반이 팽팽했다. 몇몇 학교의 경우 시험 중간 중간에 자습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한

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시험당일 공부 부족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볼 시간이라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빨리 시험을 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시험을 치느라 밤 새워 공부해 피곤한데 시험이 끝난 뒤에 자율을 끼워 넣어서 편히 못 쉬었다.” “자율시간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시간에 쫓겨 효율성이 떨어진다.” “시간표에 암기과목이 연속으로 붙어 있어서 부담 됐어요.”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되고 있는 학교에 살고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험 시간표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한다.

시험점수 1점으로 등수가 좌지우지 되는 내신 시험에서 시험일수는 학생들에게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마다 조금씩 시험일수가 다르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 기간에 따른 장단점은 있다. 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불만을 앞 세우기보다 현재의 시험기간에 맞게 공부와 휴식의 리듬을 잘 조절해 시험기간을 슬기롭게 잘 마무리 했으면 한다.

[취재/ 박서진(진양고1)기자]

밤늦은 야식의 유혹, 이렇게 위험하다고?

부분별한 야식은 만성피로와 야식증후군까지 발병시켜...

본격적인 중간고사 시즌, 학생들의 긴장감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새 학기 처음으로 맞는 시험이라는 부담감에 학생들은 독서실을 가거나 학원을 다니며 밤샘 공부에 열을 올리는데 체력 보충을 위해 챙겨먹은 야식이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망치고 있어 문제다.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중간 쉬는 시간이나 야자를 마친 후 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을 둘러보면 많은 학생들이 라면이나 삼각 김밥 등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허기가 지면 배를 채우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속되는 이러한 행위는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야식을 먹게 되면, 내장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휴식을 취하게 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위에 들어간 음식물은 위와 장의 운동을 지속시킨다. 위는 남아있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을

분비하는데, 이 때문에 위산역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장은 공복시간 동안 평소 소화가 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를 쫓아내 주는 연동운동을 하는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소화를 위한 운동을 해야 하며, 장의 청소가 잘 되지 않으면서 유해균이 자라기도 한다. 결국 밤에 우리의 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음 날 우리가 학교 수업 중 구박구박 졸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식욕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습관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소모되지 못한 칼로리가 체지방으로 축적되어 청소년기 비만 문제로 이어진다. 이어 청소년기에 비만일 경우, 성인에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고지혈증,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 같은 비만 합병증을 일찍 겪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충치의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침의 분비량이 감소하는 밤에는 되도록 야식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야식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낮 동안의 식욕 감퇴, 저녁의 과식, 그리고 불면증의 세가지 증상으로 이루어지는 '야식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아침을 거르거나 적은 양을 먹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하루 섭취열량의 대부분을 저녁식사와 식사후에 늦은 저녁에 고탄수화물 간식(떡볶이, 빵, 과자, 피자 등)을 섭취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낮에는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고 쉽게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밤 늦게까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자신의 몸, 건강을 위해서 알고 먹어야 한다. 먼저 아침을 거르지 않고 하루 세 끼 식사를 지켜야 한다. 점심 식사로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잠 들기 30분~1시간 전에 허기를 느끼면 딱딱하거나 기름진 음식물보다 과일이나 채소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씹으면 입안의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치주 질환 예방에 좋다. 특히 오이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갈증해소와 입안에 수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취재/김찬유(진주고2)기자]

수학여행 우리의 안전요원은 어디 있나요?

인원수 기준의 안전요원 의무 배치 규정은 문제 있어

4월이면 많은 학교에서 앞 다퉈 수학여행을 떠난다. 친구들과 함께 서울이나 제주도 등으로 여행을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은 분명 학생들에겐 소중한 경험 중 하나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즐거운 일만이 가득한 수학여행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런 기대가 실현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일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수학여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사기간 동안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토록 하고 있다. 수학여행 때 안전요원은 여행단에 동행하고 교원을 보조해 학생 인솔, 야간생활 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안전요원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 계약 때 관련사항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해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수학여행 동행 안전요원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학여행에서 안전요원을 만나 본 적이 있는가? 분명 의무 배치이긴 하지만 안전요원 없이 수학여행을 떠난 학교도 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바로 '대규모' 수학여행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 2항에 따르면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대규모 청소년수련활동이나 별도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안전요원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학생 50명당 1명 이상으로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해야 하며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업 전문 종사자, 인명구조요원 등을 말한다. 하지만 150명 미만의 경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수학여행은 여러 테마로 나뉘어서 각 테마 별로 따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연스레 한 테마 당 인원이 150명 미만으로 줄어든 수밖에 없다. 이는 규정상 안전요원의 배치

가 의무사항이 아니게 됨을 의미하게 되고 결국, 안전요원 없이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요원 의무배치의 규정이 생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인원수로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마치 학교 경제수업에서 배우는 안전한 투자를 위한 유명한 명제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를 수학여행에서 확인하는 것 같다.

150명이라는 기준, 그 인원 이하의 수학여행단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누가 주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 그 인원 이하라면 안전요원 없이도 그 어떤 사고에도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전문적인 안전요원은 수학여행단에 항상 필요하다. 학생들의 안전 앞에선 한개의 계란이라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이



다.

현행 수학여행 안전요원 의무배치 규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안전 불감증이다. 인원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다녀 올 수 있을 것이다.

[취재/ 광복규(진주교2)기자]

아, 흡연예방교육 또 해...?

시간 때우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프로그램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아 놓고 여러 교육을 한다. 그 중 흡연예방교육을 가끔씩은 받아 봤을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호 및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속에 체계적인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교실이나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강연을 하거나 동영상 보여 준다. 그런데 항상 드는 의문, 학생들이 과연 듣고 있을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8년 기준으로 6.7%다. 남학생이 9.4% 여학생은 3.7%로 남학생들의 흡연율이 여학생의 두 배를 훌쩍 넘긴다. 적지 않은 수치다. 그래서 학교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고 학교에선 흡연 학생들이 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당연히 교육당국과 학교에서는 흡연율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에는 흡연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반복한다.

"현실감이 없고 크게 와 닿지 않아서 이 예방교육을 통해서 흡연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배를 피는 학생들은 계속 피더라고요."

"이미 담배를 피는 학생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흡연예방교육 시작하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피곤해서 잠을 잔다던가 하지 딱히 흡연예방교육에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학생들의 의견이다. 흡연예방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흡연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교육은 흡연의 단점, 금연 권장 동영상 시청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 흡연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호기심, 친구의 권유 등으로 시작한다. 이 학생들은 흡연이 몸에 해로운 걸 몰라서 시작한 건 아니다.

흡연예방교육의 또 다른 목적은 금연이다.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모르고 필까? 아니다. 다들 알면서도 피운다. 알아도 이미 중독이 된 학생들은 끊지 못하고 흡연을 한다. 이러면 대체 흡연예방교육이 도움이 되긴 할까? 교육속에는 금연을 할 수 있는 해결 방안도 물론 제시를 한다. 간단한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권유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될까? 의문이 쌓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흡연예방교육을 듣는 학생들이 몇 없다는 것이다. 시험기간이면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하고 시험기간이 아닐 땐 떠돌고 장난치고 논다. 흡연예방교육이 유익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낭비에 그치고 만다.

학생과 교육자가 서로 대화를 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형태를 찾든지, 체험을 하는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금연을 도와주는



제품 소개 후 무료 지급을 하던지, 금연을 할 수 있는지 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흡연예방교육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보고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방교육이 무엇인지, 또한 담배를 피고 있는 학생들에겐 어떤 상담과 현실에 맞는 금연교육이 무엇인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취재/ 진가희(진주중학교2)기자]

야! 판치기 할 사람~~~~~!

학교 교실에서 일상이 되어 버린 도박, 이제 그만.

"판치기 할 사람!"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면 종종 듣는 소리이다. 판치기는 동전을 이용한 도박으로 보통 교실에서 행해지며, 규칙이 간단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자 도박이다. 이렇듯 학생들은 도박에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어 있다. 판치기 뿐 만 아니라 스포츠 토토, 인형 뽑기, 카드 게임 등의 도박도 청소년들은 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2018년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14만 5천 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문제군 약 3만 4천 명, 위험군 약 11만 1천 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로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2015년 5.1%보다 1.3%p 증가한 6.4%로 나타났다.

청소년도박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카드 몇 장, 동전 100원 만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도박이 일상처럼 행해진다. 단순한 재미로 시작하였다가 판이 커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판이 커지고, 돈을 따고 잃고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재미를 위한 놀이가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사들이 제재를 가하고 주의를 주지만, 학교의 숨방망이 처벌과 도박에 대한 무감각 속에 학생들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다.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청소년 도박문제를 심각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 학생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앱에서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광고들에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만큼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은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자신이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엄격한 처벌과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토토, 불법토토 등을 차단하여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학업 스트레스와 쉼 없이 도는 학교생활 속에서 즐길 거리가 마땅치 않은 청소년의 현실도 이런 현상에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은 불법이다. 호기심 때문이었다라도 도박의 유혹에 잠시 빠졌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그만 뒤야 한다. 순간의 호기심과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아선 안 되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청소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도박은 문신 같은 것이다. 단순 호기심과 순간적인 재미만을 쫓다 보면 도박 역시 문신처럼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 문신은 그나마 지울 수 있다. 그러나 도박은 우리의 정신을 망들게 해서 지우고 싶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문신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취재/ 하강영(대아고2)기자]

[필통실험실] 스마트폰 충전기 정품 VS 다○○ 비교

가격차이 5배, 성능차이는? 스마트폰 충전기 정품은 그만큼 빠를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구매했을 때 제공받는 정품 충전기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충전기를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서 새로 사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면 정품을 사기에는 가격이 비싸고 다**의 저렴한 충전기를 사자니 성능의 차이가 있을까 의심이 든다. 필통실험실에서는 정품 충전기와 다이소 충전기의 그 가격차이만큼이나 충전 성능에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실험에 사용한 아이폰 정품과 **소에서 구입한 아이리버 충전기〉

실험은 기자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인 아이폰(Xr)과 갤럭시8, 두 제품에 사용하는 충전기의 충전성능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각 스마트폰의 정품이 아닌 회사 제품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 매장에서 제품 모델과 맞는 충전기를 구입했다.

실제 스마트폰의 충전속도는 충전중인 스마트폰의 상태, 스마트폰의 충전 제어 정도, 스마트폰 배터리의 상태,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 중 하나는 충전기의 출력인데 초기 스마트

폰 충전기는 5V 0.5~0.85A 정도였는데 최근 배터리가 대용량화되면서 5V 2A가 일반화 되어 배터리 용량이 커진 만큼 속도도 빨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아답터 형식의 충전기보다 컴퓨터나 노트북의 USB 포트에서 충전할 경우 충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험방법은 먼저 각 스마트폰의 충전량이 10%일때부터 100% 충전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았고 두 번째로는 10% 충전량에서 10분 후 충전량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100%까지 아이폰은 비슷, 갤럭시는 25분 차이

구분	아이폰 정품	아이리버(8핀)	갤럭시8 정품	아이리버(5핀)
가격	25,000원	5,000원	16,600원	5,000원
출력	5V-2A	5V-2.1A	5V-2A	5V-2.1A

측정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결과는 아이폰의 경우 100% 충전까지 정품과 아이리버제품이 3분차이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10분 후 충전량 측정치는 정품이 약 2%정도 충전을 높였지만 큰 폭의 차이로 볼 수는 없었다. 반면 갤럭시폰의 경우는 정품충전기가 100%충전까지 2시간 33분이 걸려 아이리버제품보다 25분여가 빨랐다. 10분 후 측정치도 21%로 5% 차이를 보여 정품 충전기가 상대적으로 더 빠른 충전속도를 보였다.

아이폰 충전기 (실험 아이폰Xr)	10% → 100%	10% → 10분 후
정품	2시간 45분	19%
○○소	2시간 48분	17%

일반 5핀 충전기 (실험 갤럭시A8)	10% → 100%	10% → 10분 후
정품	2시간 33분	21%
○○소	2시간 57분	16%

스마트폰 배터리에 관한 진실과 거짓말



스마트폰 배터리를 다 사용하고 충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수시로 충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품 충전기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품이 아닌 충전기를 사용해도 좋을까요?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속설이 난무합니다. 이런 속설들을 전문가가 하나하나 풀어줬습니다.

1 100% 충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더 충전할 수 있다.

〈진실〉디스플레이에 100%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도 더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충전 완료라고 떠도 계속 충전을 하면 배터리 내부를 손상시켜서 충전 회수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장시간 100% 충전 상태로 방치하면 배터리 충전 회수를 줄이게 됩니다.

2 Wi-Fi 및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다.

〈진실〉Wi-Fi와 블루투스 GPS를 습관적으로 켜 놓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Wi-Fi를 켜놓고 외출을 하면 주변의 수많은 Wi-Fi 신호를 스캔하고 연결 가능한 Wi-Fi에 접속하려고 수없이 시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가 확실히 닳습니다. 집안 같이 안정되고 고출력의 Wi-Fi가 아닌 실외의 Wi-Fi 신호는 불안정하고 신호가 약해서 배터리 소모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Wi-Fi와 블루투스, GPS 기능을 꺼주세요. 화면의 밝기를 낮추거나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3 비정품 충전기로 사용하면 스마트폰이 손상될 수 있다?

〈진실〉정품 충전기는 100% 충전이 되면 과전류 보호 회로에 의해서 충전을 중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품이 아닌 비정품 충전기는 과전류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만약 필요 이상의 전류가 계속 공급되면 1번에서 말한 것처럼 리튬 이온 배터리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정품 충전기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품 충전기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4 컴퓨터에 연결해서 충전하면 배터리에 좋지 않다?

〈거짓〉스마트폰을 충전기가 아닌 USB케이블을 노트북이나 PC에 연결해서 충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충전기가 아닌 PC로 충전하면 배터리에 좋지 않다는 소리가 있지만 천천히 충전하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부담은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 PC로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전원을 끄면 배터리 수명이 연장된다?

〈거짓〉이런 속설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오기 이전에 사용하던 니켈 수소 배터리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니켈 수소배터리는 다 사용한 후(완전방전)에 완전 충전을 해야 100% 충전이 되지 않는 메모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메모리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충전량이 표시되어 있기에 얼마나 배터리가 남았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끄는 것이 배터리 전기 소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터 끝 필요는 없습니다.

6 배터리가 차가워지면 배터리 수명이 저하된다?

〈대부분이 거짓말〉배터리 사용시간은 추운 겨울에 줄어듭니다. 하지만 배터리 수명 측면에서는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공간 예를 들어 더운 여름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면 배터리 수명과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배터리는 열을 싫어합니다. 기온이 낮으면 배터리가 빨리 닳고 중간에 방전이 될 수 있지만 배터리 성능과 수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 충전기를 전기 콘센트에 꽂은 상태로 두면 전기 낭비?

〈약간 거짓말〉예전엔 전원을 꺼지 않고 전원 콘센트에 꽂아만 놓아도 소비되는 전력인 대기 전력을 많이 먹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대략 10%가 대기 전력으로 소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기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8 배터리를 0%까지 사용 후에 충전해야 한다

〈거짓〉좀 이상한 말이지만 배터리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은 완전히 충전된 상태이거나 방전된 상태입니다. 배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50% 충전된 상태입니다. 만약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충전량을 20~80% 사이에 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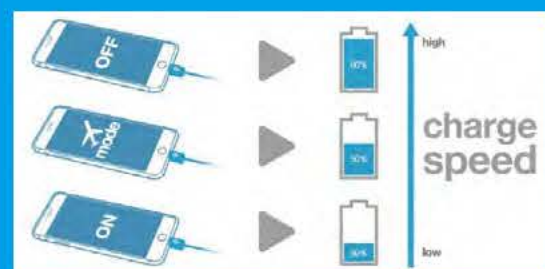
9 충전을 100%이 되어도 계속 충전하면 배터리를 손상시킨다?

〈진실〉1번 항목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밤새 계속 충전을 해서 충전 100%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100%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 배터리를 소모하면서 다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오래 쓰는 꿀팁

실제 스마트폰의 충전속도는 충전중인 스마트폰의 상태, 스마트폰의 충전 제어 정도, 스마트폰 배터리의 상태, 등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잔량이 0%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충전하라
- ◆충전 케이블이 굵을수록, USB 보다 어댑터 방식이 충전이 빠르다
- ◆급할 때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 절전모드로 충전하라
- ◆자동 업데이트는 과감하게 해제하라
-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나 앱은 잠시 꺼두자
- ◆디스플레이 밝기는 가급적 낮추자
- ◆스마트폰을 낮은 온도에 방치하지 말자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건국대 산업디자인과를 찾아서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전공, 그리고 자유로운 진로를 찾고 있나요?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인재를 키우는 '산업디자인학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은 디자인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아기자기한 물건들, 모던, 심플, 미니멀리즘 등등 다양한 용어들,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 주는 '산업디자인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건국대 글로벌 산업 디자인학과 김우성〉

Q.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건국대 글로벌 산업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김우성입니다.

Q. 산업디자인 학과는 어떤 곳인가요?

A. 산업디자인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형 예술, 과학 기술, 인문학의 성격을 공유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주도하는 관련된 지식과 방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학문입니다.

Q. 산업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산업디자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단추부터 비행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입니다.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한 중심 학문으로 제품 디자인과 시각 전달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이론과 실기를 공부하면서, 산업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Q. 학과를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예나 그림에 취미가 있었고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디자인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학과를 정했을 때 가족들은 반응은 어땠나요?

A. 저는 그림과 게임을 좋아하고 공부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는데 늦게나

마 하고자하는 꿈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흔쾌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Q. 산업 디자인과를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나요?

A. 공부를 잘하지 못해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과는 실기전형이 많기 때문에 2년 동안 열심히 그림을 배우고, 여러 학교로 실기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Q. 산업디자인과는 꼭 미술을 잘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미술을 잘하지 않아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학의 수업과정에 기초적인 제도와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때문에 자신의 미적 감각만 믿으면 됩니다^^

Q. 학과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A. 1학년 땀 주로 감각을 키우는

매력 "갖은 밤샘 과제는 고통을 주지만, 그만큼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또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개인과제, 조별과제, PPT발표, 공모전,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학교생활이 스펙타클하게 워낙 할 게 많아서 늘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남아있고 주말에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정말 대학4년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동기들과 끈끈한 우정과 추억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로선택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산업디자인을 전공한다고 하면 뭔가 엄청 멋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공의 자부심도 있고요!"



수업이 많습니다. 점, 선, 면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감각을 배웁니다.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 배운 디자인요소를 토대로 제도를 하거나 3D모델링을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과정을 배우게 되고 3D프린터로 직접 만든 도안을 뽑기도 합니다.

Q. 졸업 후 주요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디자인은 매우 폭넓은 학문입니다. 제품디자인, 조형디자인, 조명디자인, 완구디자인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

한 분야로 진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산업 디자인 학과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A. 가장 큰 매력이라면 자신이 구상하고 만든 제품을 실제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단순 도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뽑아내고 제작하여 나만의 제품을 갖는다는 것.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산업디자인 학과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A. 평소에 공예를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이 산업디자인과를 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 특성상 여러 가지 물건을 제작하고 디자인해야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공예를 싫어한다면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산업디자인 학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A. 산업디자인은 자신이 꿈꾸던 디자인을 한 발짝 더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이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꿈을 포기하지 말고 꼭 산업디자인과를 들어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일단 산업디자인학과는 예체능 계열이기 때문에 예체능의 특성상 실기와 비실기,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특성상 사실상 실기고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기고사는 수시, 정시 구분 없이 있고 반영비율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와 병행하면서 실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미대입시 준비한다고 야자 안하고 빨리가는 친구들이 부러우시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나름대로 고생이 많다는 점.... 그리고 수능이 끝나도 실기 준비에 놀지도 못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산업디자인학과 TIP

산업디자인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업디자인이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려운 단어보다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디자인을 창조하고 하나의 제품이나 형태의 디자인만 보고도 제품을 구매할 만한 욕구를 끌어당길 수 있을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이 산업디자인입니다.

산업디자인과에서는 제품, 가구, 팬시, 산업 등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활약하는 제품 디자이너들은 각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성, 디자인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또한 일반적으로 제품, 실내, 영상디자인, 3D등에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디자인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디자인과 수업에는 신티크 장비, 3D프린터 등 현업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통하여 실무와 가까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산업디자인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산업디자인과 -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목원대, 서울대, 성신여자대, 전북대
▶산업디자인전공 - 건국대, 강원대, 단국대, 동덕여자대, 동아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여대, 영남대, 위덕대, 이화여대, 전주대, 청주대, 한양대

▶산업디자인학과 - 가천의과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일대, 경희대, 고신대, 광주대, 군산대, 대구대, 동명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상지대, 서울시립대, 세명대, 세종대, 신라대, 용인대, 우석대, 제주대, 중부대, 중앙대(안성),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한서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등이 있습니다.

[졸업 후 어디로 진출할 수 있을까?]

산업디자인은 문/이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제조업체, 멀티미디어 업체, 이벤트업체, 3D업체, 게임 및 캐릭터개발업체, 공간디자인업체, 가구/조명관련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업체, 조선/의료기/산업장비/플랜트/환경/색채 관련 산업기기디자인업체, 디스플레이디자인사무소, 가구관련회사, 광고기획사 등에 취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직업으로는 가구디자이너, 디자인강사, 신발디자이너, 자동차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주얼리디자이너, 출판물편집자, 캐릭터디자이너, 한지 공예가, 홍보전문가, 휴대폰 디자이너 같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뭐가 있을까?]

산업디자인학과에서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이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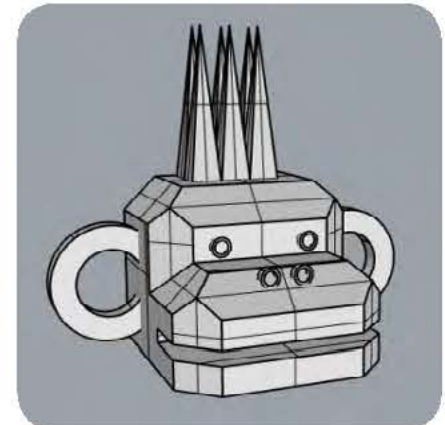
석가공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 '실내건축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등이 있고, 외국 자격증으로는 ACE, ACS, ACTP 등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과의 적성과 흥미는?]

산업디자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상상을 접하여 안목을 넓히는 것이 좋고, 미적 감각과 감수성, 창의력, 표현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호기심과 관찰력이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최종 작업물을 완성해 내는 끈질긴 근성과 꼼꼼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많은 물건들을 디자인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최신 트렌드를 알아내고 이를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직접 디자인한 자신의 명함



〈라이노 프로그램으로 직접 만든 3D 원숭이〉

[글로벌미팅] 인도네시아 유학생 Stevany Grace를 만나다

한국 족발 좋아요^^ 발리발리~ 선, 후배 문화는 힘들어요!



〈경상대 국어국문학과 Stevany Grace〉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인도네시아에 온 편입생 스테파니 그레이스 조이강(Stevany Grace)입니다. 현재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Q.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전공이라서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학과 선택할 수 없어서 국어국문과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St. Francis of Assisi Catholik School, 그리고 다른 사립학교들도 종교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불교, 기독교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Q.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주로 어떤가요?

A. 저는 중고등학교는 너무 즐거웠고 스트레스도 많이 없습니다. 학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공부하고 대부분 7시에 학교를 시작하고 2시에 끝납니다. 토요일은 동아리 시간이라서 7시부터 10시 까지만 공부했고 수업 후에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고3들은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공부합니다.

Q. 대학입시가 한국처럼 치열한가요?

A. 한국처럼 그렇게 치열하는 것 아닙니다. 한국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나라는 없을걸요. 인도네시아의 TOP 10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좀 힘들지만 다른 대학교의 입학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Q.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뭐죠?

A. 꼭 어떤 직업이 되어야겠다, 라는 것 보다 많은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이런 질문 생기면 전공에 따라 대답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저의 친구들은 통역사나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중앙 자바의 보로부두르(Borobudur)는 족자르타의 관광 명소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이다〉



A. 학생들에게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은 욕야카르타(yogyakarta)와 발리 (Bali). 발리는 많이 알려져 있는 멋진 곳이고 욕야카르타는 숨겨진 관광지인데 최근 '쎄블랑'이라는 동굴로 유명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2곳 모두 다른 지역보다 사람들이 활발하고 활기 찬 편입니다.

Q. 한국에 와서 가본 곳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인가요?

A. 아직 많은 곳을 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 멋진 강이 흐르고 있고 얼마 전에 진주성을 둘러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Q. 한국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A. 저는 무조건 족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문화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기 힘들지만 한국에는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술과 돼지고기는 금지거든요. 한국의 족발은 정말 맛있고 최고 음식인 것 같아요.

Q.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확실히 다른 것은 있습니다. 빨리빨리 습관. 한국의 빨리빨리는 어떨 땐 너무 놀랍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항상 천천히 천천히가 몸에 배어 있는 편이라서 한국과 너무 다릅니다. 또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문화도 완전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는 투표는 했는데 결과는 올해 말이나 되어야 확정이 된답니다.

Q. 인도네시아는 지진 때문에 공포감이 심할 것 같습니다.

A. 큰 지진이 있고 피해도 엄청납니다. 저는 칼리만탄 섬에 왔는데 그쪽은 지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공포감을 종교로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가



너무 부족해 인터뷰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좋은 인식이 늘었으면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놀러 많이 오세요. 고맙습니다.



〈스테파니그레이스가 추천한 욕야카르타 쎄블랑 동굴〉



〈고등학교 졸업 기념 사진〉

인도네시아는 못 사는 동남아 나라? 크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한 잠재력 있는 나라입니다

Q.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한류스타들은?

A. 인도네시아에 다양한 한류스타 좋아합니다. 5-7년 전에는 슈퍼주니어 인기가 매우 높았고 팬도 많았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은 EXO와 BTS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즈, 다른 아이돌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Q. 인도네시아는 종교에 따라 학교가 다른가요?

A. 인도네시아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90%이상의 학생은 이슬람 종교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종교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천주교 믿어 제가 공부한

싶어 합니다.

Q. 한국생활 하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한국문화에 있나요?

A. 저에게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 한국 문화 따라 해야 하는 것, 문화 적응은 좀 힘들습니다. 특히 선배, 후배 이런 건 좀 이상해요. 왜 그런 문화가 있는지 아직 이해가 안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선 나이 많아도 그냥 hai, halo 하면 되고, 잘 알지 못하면 모른 척 하거든요.

Q. 한국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에 가면 꼭 가봤으면 하는 곳?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제2차 세계대전 전 네덜란드령 동인도였으며,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1949년 네덜란드와의 협의로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연합이 성립되었으나 1956년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 정식 명칭은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으로, 인도양과 남태평양 사이에 위치한다. 자바·수마트라·보르네오·셀레베스 등 대소 1만 3,677개의 섬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 해안선의 길이는 820km이다.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18,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섬나라. 수많은 숫자의 섬으로 이루어져 나라 자체가 다도해이다. 북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 동쪽으로는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남쪽으로는 동티모르, 호주와 매우 가까이 접한다.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5,500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이며, 섬나라 중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다. 이 많은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인 덕분에 이슬람교가 시작된 아라비아 반도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땅 크기도 중국-인도-카자흐스탄-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5번째로 크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나라다. 동남아시아에서 2번째로 넓은 미얀마와 3번째로 넓은 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넓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독재정치가 이루어졌고 1998년에 와서야 민주화되었으며 정상적인 의미의 국가원수(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 것은 1999년의 일로 한국보다 10년 정도 늦었으며 이후에도 군부의 입김이 정치권에 잔존하는 것은 한국과 비슷했으나 최초의 직선제 정권교체는 2014년에나 있었다. 투쟁민주당 출신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4월17일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나란히 치러졌다. 유

권자만 1억 9000만 여명, 표본 개표 결과 친서민 및 개혁성향의 조코 위도 현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하다고 한다.

발리를 뛰어 넘을 여행지를 대대적 개발

2004년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이래로 국내에는 인도네시아=발리라는 공식이 깨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발리가 인도네시아의 일 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술하다. 작년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덕택에 인도네시아의 롬복이 새로 주목을 받은 정도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섬의 개수가 1만7,508개로, 8,000여개 섬은 무인도며, 약 6,000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섬들이 5,000km가 넘는 거리에 흩어져 있으니 자연, 문화, 인종의 다양성도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부터 발리만큼, 발리보다 멋진 10개의 지역을 '10 뉴발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이곳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취재/ 진가희(진주중앙고2)기자]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남겨 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보경

안녕~ 나는 홍시아~

너 왜 나 만날 때 생얼로만 만나? 물론 생얼도 괜찮은데 화장 좀 하고 만나주면 안되니? 난 너 화장한 모습, 만날 너 프사로만 확인하는 거 같아~ 나도 너 얼굴에 덕지덕지 붙일해놓은 거 직관하고 싶다~ 같은 옆학원이면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물은 내가 바쁘지 만..ㅎ 그래도 안지 오래됐었니까 그런거라고 이해한다. 부랄야 더 사이좋게 지내자 화이팅~ 우정해~



To. 주차장



안녕 채원아~? 나는 팔 안 해도 누군지 알겠지만~ 현진이야. 우리 작년 일학년 십 반 귀요미들이라 필통 다 같이 나

오고 싶었는데 못 나와서 너무 아쉬워 ㅠ ㅠ 채원아~ 너 너무 귀여워, 핑크대지라고 할 때 씌는 것도 귀엽고 마스크로 얼굴 다 가리고 차는 것도 너무 귀여워 ㅋ ㅋ 사실 아직도 라키와 작년 10반이 아직 잊혀지지 않아 ㅠ ㅠ 일층에 거울 치나면 만날 무의식적으로 몸통에서 십반 들어가야 할 거 같고 딱 그렇 ㅠ ㅠ 난 정말 너 람 같은 반 되고 싶었는데 떨어져서 왕 아쉬워. 그래도 만날 복도에서 보니까 반갑지~??? 사실 니 처음 봤을 때 아직도 기억나~ 젤 뒷자리 앉아서 수업 완전 열심히 해서. 완전 멋졌었음 지금도 아자 하다가 고개 들었을 때 니 보면 너무 웃겨서 만날 혼자 웃어. ㅋ ㅋ 그리고 졸업식 날. 나한테 편지 안 써줘서 실망 했었음~ 그냥 알아두라고~ 꼬리 님은 장래문이라 갓 태어난 기린 정현주랑 최근 개명한 문소연 아니 문소미! 람 초딩 전지원이랑 우가우가 박경서랑 얼른 얼른 놀자~ 라키씨 생년도 챙겨야함. 사랑해. 종무차장. 주차장~~~

from. 현진

To. 영원한 나의 마니또 우현진에게 ^~^

현진나 안녕 ㅠ ㅠ

나는 너의 사람 귀여운 엉덩이 주채원이야. 항상 편지는 처음이 어렵더라. 음 일단 나는 편지 쓰는 걸 무지 좋아해~ 알지? 오새 귀찮아서 안 쓰는 중이야. ㅎ 일단 1학년 끝날 때 편지 못써줘서 진짜 진짜 미안해. ㅠ ㅠ 내가 졸업할 때 진짜 엄청 길게 써줄게. 너랑 재윙. 내 팔 알지? 너가 써준 이상한 영어 편지처럼 말고~

나 진짜 너가 너무너무 좋아. 무슨 일 있으면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너랑 있으면 편안해서 좋아. 그리고 맛있는거 주고 나 우현진 진짜 사랑해! 나 진짜 작년 너 무 그리워 눈물나 ㅠ ㅠ. 10반 우반장 보고 싶어. 점심시간에 학탈하는 것도 넘 좋았고, 만날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냥 너가 너무 좋아.. 생각해볼니까 너랑 둘이서 논 적 없음~ 진짜 반성해라 나도 반성할게 ㅠ ㅠ. 나 너네집도 가고 싶어! 시험 끝나고 정현주 집에도 가고 너네집도 가자 카키! 너도 와 현진아~ 우리 지금은 다른 반이지만 내년에 같은 반 되자 알겠지~? 크리스마스 내 마니또였던 헐디나 내가 평생



너 챙겨줄게 영원한 내 마니또 해 알겠지? 항상 고마워 사랑해~

from.우현진의 엉덩이 주채원



To. 문생진 감이 ~

감아 안녕 ~ 내 준사다. ㅋ ㅋ ㅋ ㅎ ㅎ

우리 만날 연락만하고 만나기로 해놓고 너무 안 만나는 거 같아 ㅋ ㅋ ㅋ 우리 중학교 졸업하고 한 번밖에 못 본 거 실화냐.. 빨리 만나서 밥 먹자. ㅠ ㅠ ㅠ

준말 보고 싶다. 앞으로 꼭 연락하고 우정하자

-from. 준서

To. 김영준에게..

우주최강 귀요미, 존잘러, 시크남, 차도남, 뇌섹남, 영요미, 영배, 방구석 여포, 현목이 친구, 1학년 8반 출신, 진주고 2학년 5반 김영준에게..

안녕 영준아. 난 니가 참 좋다. 작년부터 같이 지냈는데 너 진짜 멋있는 거 같다. 사실 니가 좀 부럽다. 너의 귀여운 외모, 섹시한 뇌만 보면 자괴감이 든다.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섹시한 너의 얼굴 각선미 난 니가 참 부럽다.

from 박현욱 올림



To. 지민이~

지민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그.지. 시간 빨리 간다임~ 같이 계속 붙어 다니고 혼날 때도 같이 혼났는데. ㅎ ㅎ 난 잘못 안 했는데 ~ 생각해볼니까 좀 화가 나네~ 맞든 우연하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편지 쓸게~ 고등학교는 갈려도 우리 계속 목욕탕 가잖아. 이렇게 한 달에 한 두번 만나까 말까지만 우리는 베프니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는 사이로 살자! 니한테 편지 써보는 거 처음인데 아게 마지막이야~ 사랑해 쪽.

from. 니짜부랄친구



To. 부고여신 김은비에게

은비. 아거 보자마자 우리 반으로 올 것 같아. 미리 미안~ 사진은 메가소잉탄 김은비로 점했어. 졸업하고 다른 지역가로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자 했는데, 너무 짧다고 두 달에 한 번 만나자는 은비야. 친한 애들은 다 아는 남 목하면 배꼽 잡는 은비야. 우리 시험 끝나고 또 이월드가자 + 갑지수 강아지똥 님은 은비야. 1년 동안 못해왔던 거 같이 다 해봐서 재밌었어. 평생 동안 새로운 거 애들이랑 다 같이 해보자. 평생보자 은비야~

To. 2018년 1-7반 친구들

안녕~ 알힐즈 나는 이여진이다! 살짝 부끄럽지만 한 번 써본다.

우리 1학년 때 재미나고 슬프고 화나고 많은 일이 있었어 그.지? 나는 1학년 때 어색해서 왕따 될 줄 알았는데 니네 덕분에 좋은 추억 쌓았어 좋은 친구들로 남아줘서 고마워

지금은 다 떨어져서 열심히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힘들거나 슬플 때 서로서로 챙기자!! 알힐즈 오래오래 친구하자!! 잘있어라 친구들~



from 이여진이다.



To. 지우에게

혁혁~ 갑자기 쓰려니까 좀 오글거리지만 진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주고 내 성격 안 좋은 거 받아줘서 감동적.. 시내 가자고 하면 같이 가주고 뽕꽃도 같이 보러 가주고 ㅠ ㅠ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기 쉽지 않는데 배려해주셔서 그 때 그 때는 말을 못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고마워~ 지우

혹시 진여고 1학년 중에 보고 있다면 9반에 윤지우 라고 개한테 꼭 보여주세요!!

-from 평석쌍둥 중의 한 평 예빈 씬

[정리/ 김가은(진주제일여고2)]

